

성경적 코이노니아의 회복
: 중앙감리교회 사례 연구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이희문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4년 5월

Copyright © 2024 Heemoon Lee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RECOVERY OF BIBLICAL KOINONIA : A CASE STUDY OF CENTRAL METHODIST CHURCH

Heemoon Lee

Seoul, Korea

The reason God, who has no problems even if he does nothing, created this world was to create humans in the land and establish relationships and fellowship with his creatures there. The God of love enters into a relationship with us and expects us to trust Him more, rely on Him more, and love Him more through that relationship.

The church began on this earth through a new covenant relationship given through Jesus Christ. And in accordance with the nature of God, who delights in fellowship with us, the church community fellowshiped with each other in love, shared and shared what they had, and participated, served, and devoted themselves to God's work together. This could be called koinonia. For a long time, Koinonia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connecting and growing church communities. However, modern churches that focused only on the functional aspects of koinonia for church revival and growth made the mistake of trying to program koinonia or apply it only to specific content, such as fellowship time. If you look at the early church communities, you can see that there was no separate program for fellowship. It was a community that worshiped and prayed together, praised God, took

Holy Communion together, shared a common meal, remembered the words of Jesus Christ, and thought about grace. In it, each other naturally experiences koinonia. This study is a record of these concerns and efforts to apply them in actual ministry settings. What we must not forget is that koinonia is not something that only occurs through relationships between believers or between people. The Holy Spirit is with you in that relationship. The moment you think of it as a human relationship, you cannot reach true koinonia. This study is a report on the process and results of efforts to apply biblical koinonia to actual church ministry. Although this paper has many shortcomings, it is hoped that through this study, churches will arise that realize the koinonia of believers and believers, churches and churches, and churches and neighbors.

국문초록

성경적 코이노니아의 회복
: 중앙감리교회 사례 연구

이희문

서울, 대한민국

아무 것도 하지 않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그 땅 가운데 사람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자신의 피조물과 관계를 이루고 교제하기 위함이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그 관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기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언약의 관계를 통해 이 땅에 교회는 시작되었다.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며 자신의 것을 나누고 공유하였으며,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며, 섬기고 헌신하였다. 이것을 코이노니아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오랜 교회 역사 속에서 코이노니아는 교회 공동체를 서로 연결해주고 성장하게 하는 중요한 기능을 감당해왔다. 하지만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한 코이노니아의 기능적인 부분에만 주목한 현대 교회들은 코이노니아를 프로그램화 시키거나 친교시간과 같은 특정한 내용에 대해서만 적용하려 하는 문제를 나타내었다. 초대교회 공동체를 살펴보면 교제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함

게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였고, 함께 떡을 떼고 공동 식사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를 생각한다. 그 안에서 코이노니아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경험되어진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고민과 함께 실제 사역의 자리에서 적용하고자 노력했던 부분들에 대한 기록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코이노니아는 성도들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코이노니아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 관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사람의 관계로 생각하는 순간 진정한 코이노니아에 이를 수 없는 것이다.

본 연구는 실제 교회 사역에 성경적 코이노니아를 적용하고자 노력한 사역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보고이다. 부족한 점이 많은 논문이지만 이 연구를 통해 성도와 성도, 교회와 교회, 교회와 이웃의 코이노니아를 실현하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목차

감사의 글	ix
표 목차	x
사진 목차	xi
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방법과 구성	5
II. 성경적 코이노니아	7
1. 코이노니아의 정의	7
2. 성경에 나타난 코이노니아	9
(1) 구약 성경 속 코이노니아	9
(2) 신약 성경 속 코이노니아	13
예수님의 코이노니아	16
바울의 코이노니아	18
요한의 코이노니아	22
III. 성경적 코이노니아의 회복을 위한 제안	24
1. 현대 교회 코이노니아의 한계	24
2. 성경적 코이노니아의 제안	30
(1) 가족 공동체의 코이노니아 실현	30
(2) 공유와 연합의 코이노니아 실현	38
(3) 사역과 나눔의 코이노니아 실현	42

IV.	성경적 코이노니아의 적용 : 중앙감리교회 사례를 중심으로.....	44
	1. 전교인 수련회를 통한 코이노니아.....	47
	2. 교회 통합 속에서의 코이노니아.....	61
	3. 선교 및 지역 섬김을 통한 코이노니아.....	70
V.	결론.....	80
	부록	82
	참고문헌	90

감사의 글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 주시고 인내해 주시며 귀한 진리의 가르침을 주신 김영래 교수님과 조병호 박사님, 그리고 레너드 스윗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루 목회학 박사 과정을 통해 성경과 시대를 읽는 통찰력을 지닌 세 분 교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부족한 목회자가 드루 목회학 박사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던 중앙교회 이형노 담임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비롯한 모든 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학업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더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움 주신 이상원 장로님과 허성윤 권사님의 지원과 격려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논문 속 중요한 사역들을 함께 한 중앙교회 목회팀과 스태프들, 그리고 중앙교회 청년들과 꿈꾸는 빛 교회학교 교사, 학생 모든 지체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의 목회와 학업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며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가르침을 주시고 신앙의 본이 되어 주신 아버지 이형모 장로님과 어머니 조나옥 장로님, 그리고 늘 분주한 저희 부부에게 큰 도움이 되어 주시며 항상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장인, 장모님 서진교 장로님과 김남수 장로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든든한 나의 최고의 팬이자 나만의 날카로운 비평가인 사랑하는 아내 서아영 사모에게 항상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늘 웃을 수 있도록 해주고 아빠를 응원해주는 사랑하는 자녀 이하임, 이하리, 이하운 세 자녀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드루 목회학 박사 과정이 저를 더욱 겸손하게 하는 과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학업의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2024. 3

어느 봄 날, 빌딩 넘어 북한산을 바라보며

이희문

표 목차

< 표 1 > 온라인 신앙생활에 대한 의견	27
< 표 2 > 온라인 활동에 대한 인식.....	27
< 표 3>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예배 모임 유형.....	29
< 표 4> 영적인 대화 시 선호 방식.....	29
< 표 5> 한국 개신교인 중 ‘명목상 교인 + 가나안 성도’ 비율.....	33
< 표 6> 명목상 교인과 비명목상 교인의 출석 빈도.....	33
< 표 7> 교회 활동 및 프로그램 참여 의향.....	35
< 표 8> 현재 교회 선택 이유.....	36
< 표 9 > 중앙배화 꿈빛캠프 일정표.....	54

사진 목차

< 사진 1 > 서울 중심점 표지석.....	45
< 사진 2 > 중앙교회 외관.....	46
< 사진 3 > 중앙교회 예배당(가우치기념예배당)	47
< 사진 4 > 중앙배화 꿈빛캠프 홍보 배너.....	53
< 사진 5 > 중앙배화 꿈빛캠프 티셔츠.....	56
< 사진 6 > 중앙배화 꿈빛캠프 단체사진	57
< 사진 7 > 중앙배화 꿈빛캠프 결단의 시간.....	57
< 사진 8 > 중앙배화 꿈빛캠프 결단의 시간.....	57
< 사진 9 > 중앙배화 꿈빛캠프 아침 묵상 (그림묵상)	58
< 사진 10 > 2018년 중앙가족 꿈빛캠프.....	61
< 사진 11 > 2021년 중앙가족 온라인 수련회.....	61
< 사진 12 > 2021년 중앙가족 온라인 수련회.....	61
< 사진 13 > 2023년 중앙배화 하나됨 예배 순서지.....	67
< 사진 14 > 중앙배화 하나됨 예배 후 기념 사진.....	68
< 사진 15 > 중앙배화 연합 청년부 구글 설문 결과.....	69
< 사진 16 > 중앙배화 연합 청년부 여름 수련회.....	69
< 사진 17 > 2018, 2019 중앙교회 교회학교 연합 단기선교 로고.....	72
< 사진 18 > 2019 중앙교회 교회학교 연합 단기선교 사진.....	72
< 사진 19 > 2023 중앙교회 교회학교 연합 단기선교 사진.....	73

< 사진 20 > 인사동 전통문화축제 참여.....	74
< 사진 21 > 인사동 전통문화축제 참여.....	74
< 사진 22 > 인사동 부활절 계란 전도.....	75
< 사진 23 > 인사동 부활절 계란 전도.....	75
< 사진 24 > 중앙교회 10층에 위치한 무인 카페 (엔 카페)	76
< 사진 25 > 종로구청 시무식 (중앙교회 본당 사용)	76
< 사진 26 > 종로구청 시무식 (최태성 선생님 역사특강)	77
< 사진 27 > 지역 연탄봉사 참여(교회학교와 청장년)	78
< 사진 28 > 돈의동 쪽방촌 생필품 박스 전달.....	78

제 I 장

서 론

1. 연구 목적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즐거워하신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다. 에덴에서부터 코이노니아가 있었다. 하지만 아담의 죄로 인해 에덴의 코이노니아는 깨어졌고, 하나님은 다시 관계를 맺으셨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후 초대교회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관계를 이어가신다. 하나님이 코이노니아를 기뻐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신학생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지만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헬라이어 단어 몇 가지가 있다. 교회에서 그만큼 자주 사용되고 있고 성도라면 누구나 그 뜻을 알고 있다고 전제하며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이다. 그 중 대표적인 단어가 ‘코이노니아’가 아닐까 싶다. 필자도 어린 시절부터 교회학교 예배의 설교시간이나 수련회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 단어를 수없이 접해왔다. 그리고 언제부터 인지 알 수 없지만 코이노니아는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간식을 먹으며 게임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막연하게 이해해왔다. 그리고 목회를 시작한 이후로는 교회 프로그램의 한 내용으로

코이노니아를 생각하게 되었다. 물론 그 의미와 필요성을 언어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알고는 있었지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생각하게 되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큰 행사나 새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서로가 가까워지는 친교 시간의 의미가 더 컸던 것은 사실이다.

코이노니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부분인 것은 부정할 수 없으며,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의 구성원들의 교제에 초점을 맞추어 코이노니아의 의미를 강조한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교회 구성원들 간 친교의 목적으로 코이노니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진행한 것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지금의 교회 코이노니아의 문제를 제기하며 성경적 코이노니아 회복을 주제로 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코이노니아의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제의 의미만이 아닌 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초대교회의 상황과 환경에서 만이 아닌 지금의 우리 교회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모두 필요한 이해라고 생각되어진다. 성경 속 코이노니아의 의미들을 정리하면서 코이노니아의 핵심은 관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레너드 스윗 교수는 본인의 저서 『관계의 영성』에서 “관계는 기독교 신학의 중심축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관계 밖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관계는 새로운 창조 세계인 하나님 나라의 생태계다.”¹라고 저술하고 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교회 구성원들의 관계를 통해 구현된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루게 된다. 그렇게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 우리는 또 다른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¹ 레너드 스윗, 『관계의 영성』 윤종석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7), 148.

필자는 이러한 관계들을 맺는 방식을 코이노니아로 이해하며 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하나님 나라의 생태계안에서 교회 공동체는 그 생태계가 원활하게 유지되며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경적 코이노니아를 회복해야 한다.

코이노니아와 관련된 성경의 본문들을 목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 코이노니아의 의미가 성경속에서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헬라어로는 같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음에도 그 상황과 의미에 따라 우리말 성경은 물론, 영어성경 속에서도 다른 단어들로 번역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 이후 비로소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있음이 기록되어 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삼천 명의 세례 사건 기록 이후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한 첫 기술이라 할 수 있는 이 구절 속에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의 핵심 행위들이 나타난다.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교회 신앙공동체 안에서의 예수님 말씀과 교리의 전파를 의미하며, 떡을 떼었다는 것은 성만찬을 함께 나누는 예전적 행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것은 개인의 신앙수행, 목상과 함께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한 행위이다. 그리고 이러한 중요한 교회공동체의 신앙적 행위에 함께 기록되고 있는 것이 서로 교제하였다는 것이다. 헬라어 원어 코이노니아를 사용하고 있는 이 구절을 통해 초대 교회 공동체에게 있어서 코이노니아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 교제라는 단어로 번역된 것은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사용되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코이노니아의 의미이다.

하지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개혁개정 성경을 기준으로 요한서신에는 ‘사귄’이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참여’ (고린도전서 10:16, 고린도후서 8:4, 빌립보서 3:10)로 번역되는 부분도 있고, ‘교통’ (고린도후서

13:13), ‘나눔’ (히브리서13:16), ‘연보’ (고린도후서 9:13)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코이노니아는 단지 식사를 함께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가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코이노니아를 강조하며 교회의 친교 프로그램으로서 코이노니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해왔다. 교회 안에서 코이노니아가 일회성 프로그램이나 행사로 끝나지 않고 교회의 분위기 안에서 잘 정착된 교회들도 많이 있음을 알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교회는 성도 간의 교제와 새가족의 교회 적응, 교회학교와 청년부의 활성화와 부흥, 소그룹의 교제를 위해 코이노니아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더 효과적인 코이노니아를 위해 고민을 할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친교와 사귄데 더 비중을 두는 코이노니아는 몇 가지 한계가 있었음을 경험하게 된다. 교회 안에서 관계가 흔들리고 깨어질 때, 친해진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 이유로 교회에 함께 하기 어려워진 경우, 수련회나 교회 행사의 프로그램을 통해 가까워졌지만 그 이후에 다시 어색해지는 것을 반복하는 경우 등, 여러 상황 속에서 친교와 사귄데 목적으로 하는 코이노니아의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 물론 사람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며,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교회 안에서의 갈등과 분열을 어렵지 않게 목격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온전한 코이노니아를 경험한다면 그러한 관계 맺음이 성도들의 관계로 연결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성도와 비성도, 교회와 지역사회의 관계로도 연결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코이노니아일 것이다.

피상적 코이노니아를 넘어서 더욱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경 속 코이노니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때이며, 성경 속 초대교회 상황에서의 코이노니아는 어떤 의미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보며, 구약 성경 속 코이노니아의 모습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예수님 시대 이후 예수님이 말씀하신 코이노니아와 초대교회 시대의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초대 교회 상황 속에서 권면했던 코이노니아는 어떤 의미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 오늘의 현대 교회 안에서, 특별히 여러 상황의 변화를 겪고 있는 지금의 교회가 성경적 코이노니아를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것인지를 고민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성경적 코이노니아가 지금의 현대 교회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필자가 부교역자로 사역하고 있는 중앙교회에서 실제로 적용하고 진행해왔던 사역들을 토대로 그 성취 가능성과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더 풍성한 코이노니아의 은혜를 교회와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한다.

2. 연구 방법과 구성

본 연구는 본인이 섬기는 중앙감리교회의 사역 현장에서 실제로 진행되었던 사역의 경험과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의 현대교회에 적용 가능한 성경적 코이노니아의 모델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총 다섯 장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1장에서는 코이노니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된 이유와 연구 진행의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성경적 코이노니아는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의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성경 속에 나타나는 코이노니아의 모습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구약 성경에 헬라어 ‘코이노니아’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초대교회 코이노니아와 가까운

의미의 히브리어 단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코이노니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신약의 코이노니아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또한 신약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코이노니아의 모습을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먼저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드러난 코이노니아의 모습이며, 두번째로는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코이노니아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신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코이노니아’ 표현을 자주 사용한 사도 바울의 서신서 속에 나타나는 코이노니아가 초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것과 함께 요한 서신 안에 기록된 코이노니아가 가지는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성경적 코이노니아는 무엇이며, 지금의 현대 교회의 코이노니아는 어떤 부분에서 차이와 한계를 지니는지를 알아 볼 것이다. 2장에서 성경 속 코이노니아를 살펴본 후에, 3장을 통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었던 코이노니아가 오늘의 교회 안에서 어떻게 적용 가능할 것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성경적 코이노니아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특히 코로나 이후, 이전과 같은 방식의 코이노니아가 많은 한계를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교회는 성경적 코이노니아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해볼 것이다. 이어지는 4장에서는 필자가 섬기는 중앙교회의 여러 사역들 속에서 성경적 코이노니아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고민하며 준비한 사역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사역들을 통해 어떻게 코이노니아가 실현되었고, 또한 어떠한 한계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마지막 5장에서는 오늘의 교회 안에서 성경적 코이노니아는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 사역을 통해 코이노니아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정리하고자 한다.

제 II 장

성경적 코이노니아

1. 코이노니아의(κοινωνία) 정의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개역개정 성경 속 이 구절에서 번역된 교통이라는 단어는 공동번역에서는 ‘친교’, 새번역에서는 ‘사귄’ 으로 번역되었다. 영어성경을 살펴보면 NIV 성경에서는 fellowship으로 KJV 성경에는 communion으로 번역되었다. 비슷한 의미인 듯 보이지만 단어가 주는 어감은 미묘한 차이가 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의 뜻을 정의하는 것은 이 단어가 성경 속에서, 그리고 초대교회의 상황 속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때로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동안 주의 깊게 생각해보지 않고 프로그램으로서 사용되었던 코이노니아의 의미에 머물 위험성이 있다. 코이노니아의 사전적 의미와 성경적 의미, 신학적 의미를 함께 살펴보는 것을 통해 코이노니아의 진정한 정의를 내릴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코이노니아의 정의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코이노니아는 ‘동업자, 동료, 친구, 배우자, 분배자’ 라는 뜻을 가진 ‘코이노노스’(κοινωνός)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 ‘동료의식, 교제, 사귄, 공동체, 공유, 참여, 상호교류, 우정’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성경속에서는 ‘참여’ (participation), ‘나눔’ (impartation), ‘교제’ (fellowship), ‘연보’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신약성서에 코이노니아 단어는 19회 등장하고 있다. 사도행전에 1회, 히브리서에 1회, 요한일서에 4회 나오고 나머지는 바울 서신에 사용되고 있다.

‘코이노니아’는 초대교회에서 사용되기 전에 이미 그리스-로마 문화권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였다. 법률적 관계에서는 동업의 계약, 공동 소유나 물질 공동체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다.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인 ‘코이노노스’는 반려자, 동무, 참여자 등 무엇인가를 함께 하는 이들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으며, 동사 형태인 ‘코이노네오’는 ‘공동으로 소유하다’, ‘가진 것을 나누다’, ‘연합하다’, ‘참여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나누는 행위를 뜻하는 의미로 사용되어 나눔을 통해 친교와 사귄이 일어나고 공동체의 삶이 윤택해지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리스-로마 문화권에서는 공동 소유나 공동 운영의 기업, 사업상의 동료나 동업자 등의 의미가 주축을 이루었다. 물질의 공동소유는 정치와 철학의 영역에서 진정한 우정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그 세계에서 우정은 최상의 교제로 간주되었고, 이 관계는 물질의 나눔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었다.² 물질의 나눔을 할 수 있는 관계라면 친밀하고 신뢰가 형성된 관계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를 친교의 의미로 연결시킨 것이다. 공동소유를 중심으로 한 교제의 관계가 그리스-로마 문화 속 코이노니아였다면 이를 실현하는 과정은 유대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경적인 의미가 첨가되면서 교회 공동체의 단어에 가까워져 갔다.

² 오우성, 「신약 공동체의 코이노니아」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10집, 1993), 167.

2. 성경에 나타난 코이노니아

(1) 구약 성경 속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 기록에 사용되면서 교회적인 용어가 되었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그 당시 그리스-로마 문화권에서는 다양한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단어였다. 이를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 많이 사용하게 되었지만 그리스-로마 문화권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의미는 사업상의 동업자, 공동의 소유 등을 의미할 때에 많이 사용되었다.³ 이 헬라어 단어는 당연히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구약성경의 헬라어 번역성경인 70인경에서도 코이노니아로 번역된 단어는 단 한 번 등장한다. 레위기 6장 2절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이 구절에서 ‘맡겨진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코이노니아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 이것 만을 보아도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구약 성서적인 용어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구약학자이자 장로회 신학대학교 명예교수인 강사문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서 코이노니아를 대치하는 구약성경의 단어로 카베르, 바카르, 브리트의 세 단어를 설명한다. 먼저 첫번째로 카베르는 동맹원, 연맹 등의 의미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성을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차 자기의 동료들과의 관계는 타민족이나 타부족과는 달리 공동운명을 지닌 것으로 간주되었다. 요나단은

³ 강사문, 「코이노니아의 구약 성서적 이해」 (장신논단 제10집, 1994), 251.

다윗과 형제관계가 아니었지만 다윗의 카베르였기 때문에 아버지 사울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⁴ 카베르는 밀접한 교제,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구약성경에서는 역대하 20장 35절에서 여호사밧 왕과 아하시야 왕의 관계를 이 단어로 표현하였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교제’로 번역하고 있다. 또한 이 단어는 우상숭배자들을 가리키는 단어로도 사용되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 두라” (호세아 4장 17절) 호세아서에는 ‘연합’이라는 단어로 번역하였다. 우상과 연합하였다는 것은 우상과의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헬라이어 코이노니아도 이방신들을 섬기는 행위를 뜻하는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유대 랍비들 사이에서도 카베르는 동료, 친구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엷세네파나 콤란 공동체 사람들을 가리켜 카베르라고 불렀으며 키부츠 회원들을 가리켜 카베르라고 불렀다. 이와 같이 운명 공동체의 긴밀한 동료들을 말하는 단어로 카베르는 사용되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의 카베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이 단어는 선한 관계이든, 악한 관계이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묘사하는 단어였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코이노니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닌,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령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나타낼 때에도 사용되었다. 또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의미까지 확대되었다. 히브리어 카베르가 다 담을 수 없는 의미까지도 헬라이어 코이노니아는 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⁴ Ibid., 254.

둘째 용어는 바카르이다. 이 단어는 선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사람을 뜻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다.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는 것은 어떤 사명을 감당하도록 선택된 것이다. 바카르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이다. 하나님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로 선택되어진 것이기에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가 동등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충실해야 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은 가시적으로는 왕권, 성전, 땅으로 나타난다. 이스라엘의 왕정제도는 베냐민 지파의 사울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사울 이후 유다 지파의 다윗 왕권의 수립되었고, 이는 다윗으로부터 이어지는 유다 지파의 왕권을 통해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선택이셨다. 또한 하나님은 제사장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곳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여 그곳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의 중보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모세의 때부터 이어진 장막이 비로소 성전의 형태로 예루살렘에 세워지도록 솔로몬의 때를 선택하셨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었지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그 땅에서 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 그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는 그 땅에서 떠나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⁵ 이와 같이 히브리어 바카르는 하나님이 관계 맺기 위해 적극적으로 선택하셨음을 알 수 있는 단어이다.

세번째 단어인 브리트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뜻하는 단어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의 관계를 의미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을

⁵ Ibid., 259.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잃게 된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혈연, 인종적 우선성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관계성과 관계에 대한 책임과 사명을 인식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명은 먼저 선택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에 있다. 사랑을 전하기 앞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필요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비판하는 말로 그들이 스스로 가졌던 선민사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말 그대로 선택받은 민족이라 스스로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생각은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이들, 선택받지 못한 이들에 대한 우월감으로 변질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였다. 선택받은 것은 그 선택이 자신들에게서 끝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길 원하시는 더 많은 민족과 열방을 향해 쓰임 받는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했다.

갈등과 부조리가 해소되고 가난하고 억울한 자, 소외된 자들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이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다. 나눔과 섬김의 신앙의 실천을 행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되고 백성의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다.

코이노니아를 정확히 번역하여 완전히 대치할 수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없다. 하지만 카베르, 바카르, 브리트 이 세 단어 중에서 가장 가까운 단어를 하나 꼽는다면 그것은 브리트일 것이다.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관계를 맺으신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허락해주실 때에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을 지키는 것을 기대하셨다. ‘동산 중앙의 나무를 먹지 않는 것’, 하지만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 에덴의 언약은 깨어졌다.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에도,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선포하실 때에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관계를 맺으신다. 구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는 신약에서의 언약의 성취로 나타난다. 구약에서의 언약은 왕과 백성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이지만, 신약에서의 코이노니아는 더 깊고 친밀한 관계로 나타난다. 신약에서의 언약 관계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구약 성경에서 코이노니아에 가까운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그 관계의 경험을 통해 이웃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제 더욱 구체화되어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코이노니아가 신약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2) 신약 성경 속 코이노니아

‘교육목회 커리큘럼’⁶을 저술한 마리아 해리스는 일찍이 교회의 본질을 1)케리그마(복음), 2)디다케(가르침), 3)코이노니아(교제), 4)디아코니아(봉사) 5)레투르기아(예배)의 다섯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교회는 복음의 선포를 통해 이루어진다.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을 통해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사건과 부활의 소식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이를 듣는 이들을 향해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다. 성령의 경험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소유한 이들이 함께 모여

⁶ 마리아 해리스, 『교육목회 커리큘럼』 고용수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교제하며 함께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였고 자신의 소유를 나누고 통용하며 섬김과 봉사에 참여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였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교회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코이노니아 단어를 사용하였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 기록한 초대교회의 처음 모습에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고 기술하였으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셨다고 기록하였다. 사도 요한도 복음을 전하여 성도 간에 사귄이 있다고 기록하며 코이노니아가 초대교회 공동체의 공통된 기본적인 모습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코이노니아는 신약성경 어디에서도 에클레시아(교회)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신약성경의 여러가지 교회의 이상적 모습을 이야기할 때에 항상 등장하는 부분이 코이노니아다.

감신대 신약학 교수를 역임한 조경철 교수는 “그러므로 코이노니아는 교회의 본질이며, 교회의 일치를 지키는 원리이고 동력이다. 교회는 하나님이 인간을 그리스도와의 코이노니아로 부르심으로써 창조되었고, 그 교회 안에서 선포와 고백 그리고 성례전을 통하여 이 그리스도와의 코이노니아가 반복된다. 또한 교회는 교인들 상호간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기에 교회는 코이노니아의 산물이자 동시에 코이노니아가 실현되는 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⁷라고 이야기한다. 한편으로는 초대교회 공동체 상황 속에서 각각의 환경, 구성원들이 달랐기 때문에 코이노니아가 잘 이루어지고 공동체의 정체성이 잘 확립되었던 곳들도 있었던 것과 달리 코이노니아의 의미를 잘 모르거나 그 의미를 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갈등과 혼란을

⁷ 조경철, 「코이노니아의 성서적 이해 : 사도 바울의 이해를 중심으로」(기독교사상 제416호, 1993), 37.

겪은 공동체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보더라도 신약의 모든 공동체에서 코이노니아는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온전히 실현하는 것에서는 갈등과 문제가 있었던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결코 제외할 수 없는 실천 지침인 코이노니아를 얼마나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가는 그래서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신약성경에서 ‘코이노니아’ 와 같은 어근인 ‘코인’ 을 포함하는 단어들은 어떤 의미들로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신약성경에서의 코이노니아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동사 ‘코이노네오’ 는 ‘공동으로 소유하다’ 라는 의미를 갖는데, 신약성경에 4회 사용되었다. 코이노네오는 ‘공유’ 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공유하는 것, 그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도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하여 비로소 우리의 고난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물질적인 것을 공유하는 것, 초대교회가 물건을 통용하며 아낌없이 나누었던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공유의 의미가 코이노네오에 담겨있다.

또한 코이노니아를 행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인 ‘코이노노스’ 는 10회 사용되었다. 코이노노스는 ‘공동으로 어떤 일에 참여하는 사람’ 을 지칭한다. 그리고 참여를 통해 그 결과를 함께 나누는 것 까지를 의미한다. ‘동역자’ 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코이노노스는 단순히 같은 일을 함께 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친밀감이 더욱 깊게 나타나는 ‘동료’ , 우정이 깊은 ‘친구’ 에 가까운 단어라 할 수 있다.

신약성서에서의 코이노니아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을 표현하는

⁸ 오우성, *op. cit*, 170.

단어였고, 의미적으로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함께 참여하는 것,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들이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신약성경에서 코이노니아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예수님의 코이노니아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구절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함께 교제하고 있는 이들은 누구일까? 앞선 구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여 세례를 받은 이들을 말한다.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교제하는 첫번째 대상은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 새사람이 된 이들이었다. 사도행전에서 처음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은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다.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가정의 모습을 토대로 구성되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돌보아 주고 서로를 위해 증보하는 공동체였다.

초대교회의 이러한 코이노니아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으로부터 기인한다.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이렇게 세 가지 대표적 사역으로 이야기 한다. 이 모든 사역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람이다. 가르침을 받을 제자들이 있어야 하고, 치유 받을 병자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들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에 이 사역은 완성된다. 또한 예수님은 사역의 시작부터 동역자들을 세우셨다. 제자들은 가르침의 대상이며, 함께 사역을 돕는 제자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 나가야 하는 동역자이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코이노니아를 이루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의 가족들보다

제자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였다. 예수님의 코이노니아가 주로 이루어졌던 것은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였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음식과 음식을 통한 만남, 교제의 이야기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가나의 혼인 잔치였으며, 물론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통해서 혼인 잔치가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우셨다. 예수님은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바리새인과의도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셨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를 통해서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으로 연결하셨다. 레너드 스윗 교수는 예수님의 식탁의 교제의 특징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 첫번째로는 예수님은 혼자 드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홀로 계신 시간을 필요로 할 때는 있었지만, 혼자 드시는 것은 좋아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전제 조건 없이 낯선 사람들과 친구들을 불러 함께 드셨고 누가 식사 초대를 하든 거의 다 받아 주셨다. 예수님은 음식에 대한 배고픔 못지 않게 함께 식사할 사람들에게 대한 배고픔이 있었다.”⁹ 예수님은 무엇을 먹는가의 문제보다 누구와 먹는가에 대해 늘 관심이 있으셨다. 레너드 스윗 교수가 설명하는 예수님의 식탁교제의 두번째 특징은 예수님은 그 대상을 가리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균등했다고 설명한다. “예수님과 함께 저녁 식사에 갈 것이냐 아니면 관계를 거부할 것이냐는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이다. 다만 그분의 초대는 만인에게 - 심지어 우리에게까지 - 열려 있다.”¹⁰ 예수님은 소외받는 이들, 무시받는 이들, 심지어 율법으로 부정하다 여겨지는 이들에게까지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고자 하셨다. 오늘날 교회의

⁹ 레너드 스윗, *op. cit.*, 199

¹⁰ *Ibid.*, 209.

코이노니아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코이노니아는 상대를 가리지 않는 식탁의 교제, 누구와도 관계를 맺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시작한다. 사람에게 대한 관심, 사람에게 대한 사랑 없이는 코이노니아는 시작될 수 없다. 예수님의 코이노니아는 예수님이 항상 누군가와 함께 하셨음을 통해 알 수 있다. 제자들과 병자들, 귀신들린 자들과 세리, 창녀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까지도 예수님은 함께 하셨다. 예수님은 늘 자신과의 코이노니아로 많은 이들을 초대하고 계셨지만,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이들과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로 이어졌다.

바울의 코이노니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들 중에서도 고린도전후서에 집중적으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표현하며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코이노니아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교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사람들 서로의 교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 고린도전후서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특별한 관계를 이해할 때에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며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였다. 하지만 그가 고린도를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 직분의 권위를 의심하고 공격하며, 모함하는 이들이 나타났다. 이들을 거짓 교사라고 사도 바울은 지칭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지냈던 시간동안 각별한 정을 나누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지만, 어느 순간 거짓 교사들에 의해 흔들리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의심하게 되었다. 고린도전후서에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특별한 애정이 나타나 있다. 강하게 책망하며 자신을 변론하면서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다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특별한 코이노니아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변화가 더욱 마음 아팠을 것이다.

바울의 코이노니아 개념을 독일의 신약학자인 하인츠(J.Hainz)는 “바울의 코이노니아는 어떤 것에 공통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사귄”¹¹이라고 정의하였다. 여기서 함께 참여하는 것은 성도의 생활, 전도의 사역, 교회의 봉사를 비롯한 성도의 교회 생활에 모든 부분을 의미한다. 또한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동일한 일들에 참여하는 것, 예전적인 부분을 포함하여 모든 것에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참여의 코이노니아는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서 부활과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으로 표현되고 있다. 교회 공동체의 식탁교제를 포함하는 교제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성도의 삶, 구원을 위한 여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그 의미를 확대하였다.

또한 사도 바울은 코이노니아를 경제적인 도움과 관련하여서 사용하였다. 바울은 전도여행 기간 동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후원 연보를 여러 교회에 권면하고 자신이 전달하는 일을 맡기도 하였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도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참여했다는 것을 전하기도 하였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¹¹ KOINONIA, “Kirche” als Gemeinschaft bei Paulus (Regensburg, 1982)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고린도후서 8장 3~4절) 여기서 사용된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한다는 표현이 코이노니아로 기록되었다. 이렇듯 바울의 코이노니아는 바울 서신 안에서도 여러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신약학 교수인 이종윤 교수는 바울의 코이노니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 A. 아들과 교제하는 코이노니아
- B.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코이노니아
- C. 헌금에 참여하는 코이노니아
- D. 성령의 교통하시는 코이노니아
- E.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믿음으로 교제하는 코이노니아
- F. 고난과 영광에 참여하는 코이노니아¹²

아들과 교제하는 코이노니아는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은혜로 불러주셨으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부르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기를 권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예수님과의 코이노니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해주신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통해 성만찬의 의미를 설명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며, 성만찬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성만찬에 함께 참여하는 이들과의 교제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 이후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물질적 나눔에도 능동적으로 함께 했다. 나누는 삶을 통해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였다. 교회가

¹² 이종윤, 「신약에 나타난 코이노니아」 (한국신약학회, 1995), 144-147

여러 지역에서 생겨나면서 교회는 서로 다른 교회를 돕는 일들에도 참여하였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교회에 구제 연보를 전달하였다. 물질적 나눔은 헌금으로만 설명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교회의 소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등을 다른 공동체와 나눌 수 있다면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나눔의 코이노니아일 것이다.

또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이야기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우리 서로가 교제를 이루고 있다.”¹³ 바울의 코이노니아에서 영적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성령의 교통하심은 교회 코이노니아가 세상적인 관계와 다른 가장 분명한 차이이다. 이를 위해 거짓 영을 경계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의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바울의 코이노니아는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과 믿음으로 교제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보다 더 깊은 신학적 의미를 갖는다. 바울은 복음을 세 가지 다른 차원에서 기록한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5~6절)이 구절에서 바울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 참여의 코이노니아가 끝까지 이어지는 것을 강조한다. 복음으로 인해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는 다시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빌레몬서 1장 6절에서는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¹³ Ibid., 146.

코이노니아를 믿음의 코이노니아로 설명한다. 복음을 위한 일에 끝까지 참여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전제되었을 때에 가능해지는 것이다.

현대 교회에서의 코이노니아 사역이 이제 단순히 교제와 친교에 머물 수 없음을 바울의 코이노니아를 통해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된다. 코이노니아는 성도의 삶의 부분일 수 없으며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한 일에 끝까지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요한의 코이노니아

요한서신 중에서도 요한일서에만 코이노니아는 4번 등장한다. 요한서신에서의 코이노니아는 ‘상호 교제’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취한다. 이와 함께 “어떤 대상을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공동의 일에 참여하는 행위를 전제하며 그 상호 교제와 공동 참여의 방식 그리고 그 결과로서 ‘나눔’을 동반한다.”¹⁴ 요한서신에서 말하는 교회의 본질은 코이노니아다. 요한서신에서의 코이노니아는 그 자체가 교회의 본질이면서 구원의 내용이 된다. 백석대 신약학 교수인 채영삼 교수는 요한서신에서 코이노니아는 교회의 존재방식으로 설명되는 폭넓은 개념이라 이야기한다.¹⁵ 요한일서 1장 3-4절에서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하며 ‘사귀게 하려 한다’고 코이노니아를 하나의 목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복음의 전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와 복음을 듣는 이들 사이에 사귀게 일어난다. 또한

¹⁴ 채영삼, 『코이노니아와 코스모스』(서울: 이레서원, 2021), 47.

¹⁵ 채영삼, 「코로나, 코스모스, 코이노니아: 공동서신을 통해 본 복음, 교회의 본질과 기독교 교육적 함의」(생명과 말씀, 2021), 171.

그 사림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사림을 함께 누리는 것이다. 복음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 교회는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곳이다. 코이노니아는 여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앞서 설명하였다. ‘어떤 대상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 바로 공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공유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공유나 교제는 모두 본질적으로 ‘나눔’이라는 방식을 포함한다.”¹⁶ 그래서 코이노니아에서 나눔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나눔의 결과는 물질을 함께 통용하고, 다른 교회와 어려운 이들을 위한 연보로 나타난다. 또한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행함과 마음으로도 표현된다. 요한서신에서 코이노니아는 우선적으로 삼위의 하나님과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소유하며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나눔을 통해 공동체와 세상에서 코이노니아를 실현하게 된다. 요한일서에서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사림을 누리는 것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빛과 사랑과 생명의 나눔을 실천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성경적 코이노니아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하나님과의 사림을 온전히 누리고 그 사림의 모습으로 다른 이들과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단순히 친해지고 편해지는 차원이 아니라 빛과 소금의 삶, 생명의 전달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코이노니아가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함께 참여하고 나누고 공유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¹⁶ 채영삼, 『코이노니아와 코스모스』 (서울: 이레서원, 2021), 80.

제 III 장

성경적 코이노니아의 회복을 위한 제안

1. 현대 교회 코이노니아의 한계

교회가 코이노니아를 소그룹 안에서의 친교 모임이나 교회의 중요한 행사나 프로그램화 시킨 것은 성경적인 코이노니아를 오히려 제한시키고 친교의 측면만을 교회에 적용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교제를 위해서 교제하는 목적지향적인 코이노니아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와 나눔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지만, 깊이 있고 진솔한 교제와 나눔이 일어나는 것에는 여러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거의 모든 교회들이 속회, 목장, 셀, 구역 등 다양한 이름으로 소그룹 모임을 조직하고 운영하고 있다. 성도들이 소그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며 헌신과 봉사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건강한 소그룹들이 지금까지 교회 코이노니아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왔다. 잘 모이고 오랜 기간 함께 교제하며 활발하게 교회 여러 사역에 참여하는 소그룹들은 교회의 분위기를 좌우하기도 한다. 하지만 때로는 활발한 소그룹들에 새로운 성도가 참여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교회 안에서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나와 잘 맞는 사람들과는 진솔한 교제가 일어나는 듯하지만, 그 반대로 나와 친하지 않은 사람, 잘 안 맞는 사람, 가까이 하고싶지 않은 사람들이 같은 교회 안에 있는 경우 또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미 견고해져 있는 기존의 관계들 사이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성도 본인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여는 것이 쉽지 않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를 불편하게 여기고 주일 예배만 드리고 싶어하는 성도들도 존재한다. 교인 수가 많은 대형 교회에서는 익명의 성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러한 현대 교회의 코이노니아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 것은 코로나19였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깊이 있는 사귄과 교제가 없었던 이들은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온라인 성도로 지내는 것의 편리함을 경험하게 되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교회의 예배 모임에 대한 정부의 강한 규제 속에서 많은 교회들은 예배에 대한 열정을 더욱 강조하였지만, 이는 오히려 성도들에게 교회에 함께 모이지 않더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거의 모든 교회들은 이 시기에 온라인 예배를 강화했으며 유튜브 실황 중계를 위한 방송 영상 시스템을 더욱 좋은 장비들로 교체하면서 성도들이 영상을 통해서도 충분히 현장 예배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교수인 김성중 교수는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예배 중심의 교회 사역이 진행되었고, 코이노니아는 강조되지 못했다.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횟수가 코로나 이전보다 확연히 줄어들었고, 코로나 기간 동안 코이노니아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의 공동체성은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¹⁷고 지적한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모든 교회는 어려움을 겪었다. 예배에 우선순위를 둔 것은 피치 못할 상황 때문이었으나, 그동안 모임과 행사들을 통해 코이노니아를 경험했던 기존 교회들은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의 코이노니아를 상상하기

¹⁷ 김성중, 「전환기 시대 교회의 코이노니아」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2022),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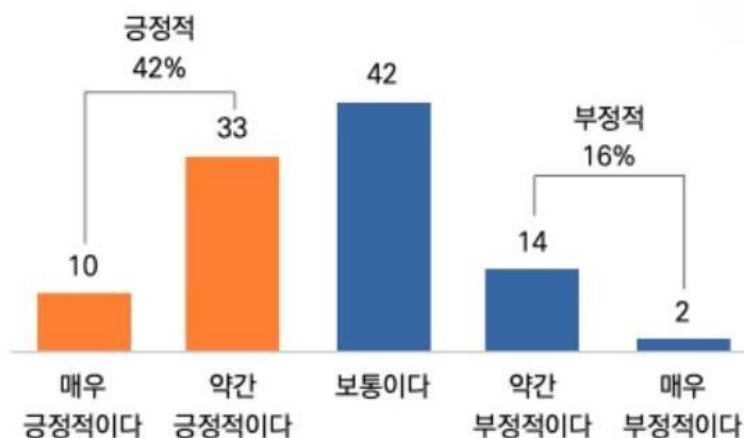
어려웠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교회들은 저마다의 코이노니아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였다. 디지털 기기들의 발전과 높은 인터넷 활용도는 교회가 코로나19 시기에 코이노니아를 조금씩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 유튜브를 통한 예배 실황 생중계는 물론이며, 댓글을 통해 소통하고 반응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어렵지 않은 일이었지만 교회의 어른 성도들에게는 이 과정도 쉽지 않았다. 필자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어른 성도들에게 유튜브 예배 실황에 접속하실 수 있도록 문자와 영상을 통해 안내해드리고, 카카오톡 링크 등을 통해 편리하게 영상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하지만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적응이 빠른 청년부의 경우 ZOOM을 통해서 소그룹 모임이나 기도회를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코로나로 인한 교회 코이노니아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교회에 분명한 타격을 주었다. 3년 가까이 진행되면서 방역단계에 따라 현장 예배의 상황들이 조금씩 변화가 있기는 하였으나 성도들에게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생각에 영향을 주었다. 코로나19가 조금씩 잦아들고 교회 모임에 대해서도 모든 방역 규제가 풀려가던 시기인 2022년 4월, 목회데이터연구소와 기아대책이 공동 조사한 ‘코로나19 이후 한국 개신교인의 온라인 신앙 생활’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신앙 생활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42%,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16%로, 온라인 신앙생활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⁸

¹⁸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 개신교인의 온라인 신앙생활”,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62&page=4

< 표 1 > 온라인 신앙생활에 대한 의견 (개신교인 전체, %)



또한 온라인 신앙생활의 경험이 있는 개신교인들에게 ‘나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교회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생각이 든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을 때에 무려 82%가 ‘그렇다’ (약간+매우)고 응답해, 적지 않은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교회 공동체에 속해있다는 소속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¹⁹

< 표 2 > 온라인 활동에 대한 인식 (온라인 예배 경험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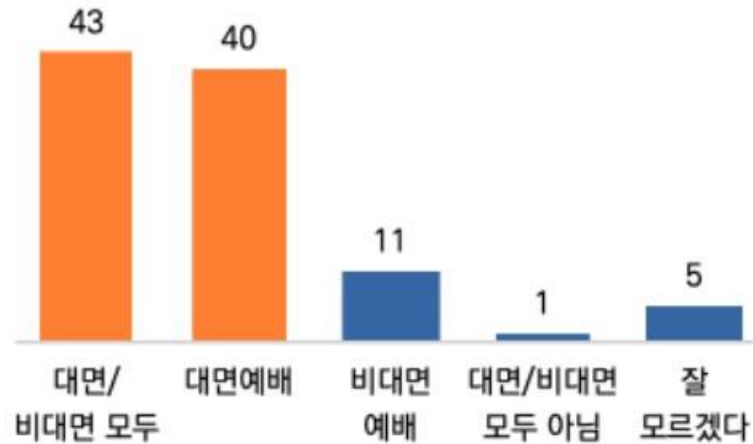
¹⁹ Ibid.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 느껴지는 위기감은 코로나19 이후 과연 교회 공동체가 이전과 같은 코이노니아를 교회 안에서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점이다. 모이는 것에 대한 갈증이 극심했던 코로나19 초기와는 다르게, 짧지 않은 시간 온라인의 예배와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어느 순간 성도들은 온라인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간 것이다. 하지만 온라인 사역을 진행할 수 있는 비교적 젊은 사역자가 있거나 온라인 시스템에 많은 사역자를 투입할 수 있는 교회에서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교제와 나눔, 소그룹 사역도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겠지만 온라인 사역에 적응하지 못하는 교회들에게는 심각한 위기 상황인 것이다. 이미 SNS와 유튜브 등 온라인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진 성도들은 교회 영상 예배는 물론 소그룹 모임에 있어서도 온라인 공간에서 진행되는 것에 적응해가고 있다. 온라인 예배자의 증가는 교회 공동체의 약화를 우려하게 만드는 결과라고 생각되었다.

하지만 온라인 신앙생활이 아무리 익숙해졌다 하더라도 성도들이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함께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며 교제하는 것에 있음을 확인하는 조사 결과도 있다. 앞선 조사결과에서 적지 않은 성도들이 온라인 신앙 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그렇다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예배 모임’에 대해 질문했을 때는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가?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예배 모임 유형에 대해 질문했을 경우 ‘대면 예배’와 ‘대면/비대면 모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대면 예배’만 꼽은 비율은 11%에 불과해, 전체적으로 대면 예배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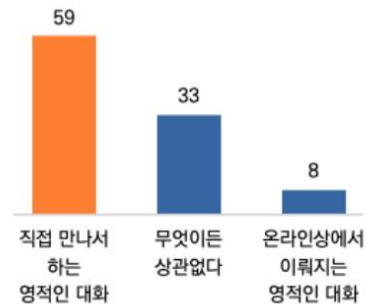
²⁰ Ibid.

< 표 3>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예배 모임 유형 (개신교인 전체, %)



또한 성경적 코이노니아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는 영적인 대화에 대한 선호 방식에 대한 질문에서도 ‘직접 만나서 하는 영적인 대화’를 선호하는 비율이 59%로 나타나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신앙의 교제를 더 선호하는 경우인 8%보다 크게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²¹

< 표 4> 영적인 대화 시 선호 방식 (개신교인 전체, %)



²¹ Ibid.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개신교회가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우려를 한다. 실제 교인 수의 감소, 교회 재정의 악화 등 코로나19 이후 많은 교회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의 코이노니아는 오히려 코로나19 기간을 지나면서 더욱 갈증을 느끼게 되었고, 그동안의 교회 코이노니아의 문제를 직시하며 보다 성경적인 코이노니아에 가까운 코이노니아는 무엇일지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함께 온라인에서의 코이노니아의 방법을 추가적으로 터득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성경적 코이노니아의 제안

(1) 가족 공동체의 코이노니아 실현

코로나19를 통해 교회는 그동안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지만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었던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맞이하게 되었다. 교회학교의 쇠퇴와 다음 세대 사역의 어려움, 부모와 자녀 세대의 인식의 차이, 교회 고령화의 문제, 청장년 세대의 이탈 등 교회 공동체와 관련된 문제들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그 심각한 상황이 임계점에 이르러 있었지만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더욱 문제가 가속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의 교회들 가운데에도 청장년 세대가 부흥하고 청장년들의 교회 봉사와 사역 참여가 높은 교회들도 물론 있으며, 어렵다고 모두가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학교의 놀라운 부흥을 이루고 있는 교회들도 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대학교들의 기독교동아리들이 존재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지만 그럼에도 청년들의 예배에 자리가 가득차고 청년 부흥을 이루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 것도 분명하다. 하지만 필자의 연구와 적용은 그러한 부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성경적 코이노니아에 가까운 관계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결과임을 먼저 밝힌다.

장신대 기독교교육학 교수인 유선희 교수는 “인간은 ‘누군가’와 상호의존, 지지, 수용을 통해 세상 속에서 안정감을 찾고 새로운 도약의 힘을 얻을 수 있다. 그 ‘누군가’는 누구인가? 다름 아닌 가장 가깝고 중요한 사람인 ‘가족’이다.”²²라고 이야기한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가족 안에서도 격리가 필요했고 부모와 자녀 안에서 수용하고 지지할 수 없는 시기를 보내야만 했다. 이러한 경험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해왔던 가족의 주일 풍경을 바꾸어 놓았다. 코로나19 이전, 교회는 가정을 이루고 분가한 자녀 세대의 가족과 부모들의 자연스러운 만남이 일어나는 곳이었다. 부모세대의 신앙적 열정과 교회에 대한 애정을 따라가지 못했던 자녀 세대의 경우, 코로나19시기에 영상예배와 온라인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면서 교회로부터 이탈이 가속화되었다. 부모를 따라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나오며 교회학교를 통해 신앙교육을 받았던 청장년 세대들은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신앙교육에 있어서는 부모 세대만큼의 열정을 가지지 못한 경우가 많다. 부모와 함께 다니던 교회를 거부감 없이 출석하는 이들도 있지만, 직장과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교회와 거리가 먼 곳으로 이사를 하거나, 기존 출석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의 예배나 목회자의 설교를 더 선호하여서 교회를 옮기고자 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래도 다른 교회 출석을 위해 부모와 다른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경우는 다행이라 할 수 있지만, 아예 가나안 성도²³가 되어 버리는 경우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코로나19를 지나며 이러한

²² 유선희, 「가정과 교회의 회복과 도약: 거친 땅과 가파른 암벽을 넘어서 새로운 도약을 향하여」(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2022), 20.

²³ 가나안 성도 : 성경의 나오는 지명인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나가'라는 문자이며 어떤 특정한 교회에 가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가나안' 교인이란 교회에 나가지 않지만

경향이 가속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가나안 성도와는 조금 다르다 할 수 있는 명목상 교인²⁴이 많아진 것 또한 코로나19 시기를 지나오며 가속화된 부분이다. 명목상 교인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영역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정체성에 있어서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신앙의 목적이 개인의 다른 필요 때문인 경우, 또한 교회에서 주일 예배 외에는 다른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기도와 성경읽기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교회 등록, 교회 출석 여부를 떠나 명목상 교인이라 보는 것이다. 한 교인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판단하고 규정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이러한 명목상의 교인들을 각 교회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2023년 6월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한국교회 명목상 교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교회 주일 예배에 출석 중인 교인의 경우에서 39.5%가 명목상 교인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에서 보고한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2023년 개신교인 중에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이 70.7%, 이 중에서 가나안 성도의 비율이 29.3%, 앞서 언급한대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명목상 교인이라 할 수 있는 이들의 비율 39.5%를 포함하면 ‘가나안 성도’와 ‘명목상 교인’을 합한 비율이 전체 한국 개신교인의 57.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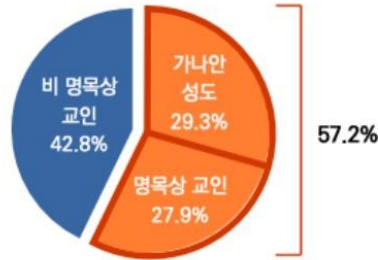
자신은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Believing without Belonging (소속없는 신앙)' 혹은 'unchurched Christian (교회없는 크리스천)'이라고 부르고 있다.

https://ko.wikipedia.org/wiki/가나안_성도

²⁴ 2018 로잔 운동에서 정의한 ‘명목상 크리스천’ (Nominal Christian) 범주 : 1. 교회에 다니지 않는 그리스도인 / 2.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 3. 회심이나 중생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 4. 헌신이 없는 피상적인 그리스도인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103

< 표 5> 한국 개신교인 중 ‘명목상 교인 + 가나안 성도’ 비율(개신교인 전체)



명목상의 교인의 경우 교회 출석 빈도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교인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 교회 출석 빈도를 물은 결과, 명목상 교인의 ‘매주 교회 참석’ 비율은 49%로 나타났다. ‘명목상 교인이 아닌 그룹’의 매주 교회 참석률이 87%인 것을 볼 때에 절반 가까이 낮은 셈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교회에도 나오고 있지만 예배 출석율에 있어서는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명목상 교인의 경우 ‘한 달에 2~3번’ 25%, ‘한 달에 1번’ 11% 등의 순으로 응답했고, ‘한 달에 1번’도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비율이 14%로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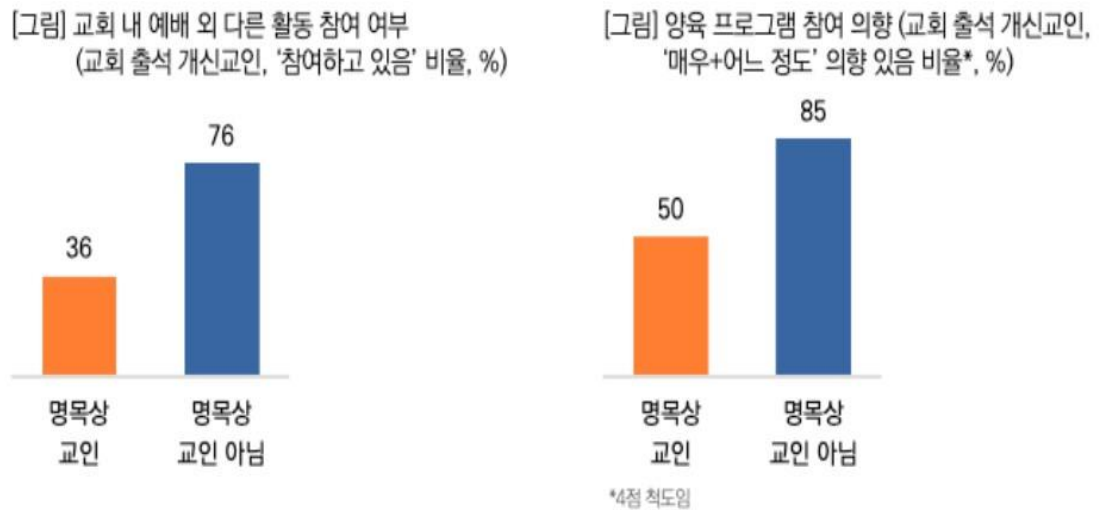
< 표 6> 명목상 교인과 비명목상 교인의 출석 빈도(교회 출석 개신교인, %)



교회 출석은 코이노니아를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이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코이노니아를 주일 예배 시간 만으로 경험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예배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코이노니아도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앙교회의 경우도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1년 동안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다. 해마다 12월경, 교회의 행정적으로 가장 큰 회의라 할 수 있는 당회를 준비하면서 교회 입교인들의 명부를 정리하곤 한다. 이 때마다 이름으로는 접하지만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교인들의 이름을 두고 회의가 진행된다. 반복되는 결론은 성도 분 중 어느 권사님의 자녀, 어느 장로님의 자녀이기에 입교인으로 유지하자는 것이다.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경우 이명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지만 다른 교회 출석도 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교회의 출석 여부가 해당 교인의 신앙적인 부분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교인들이 많다는 것은 교회의 코이노니아 회복을 위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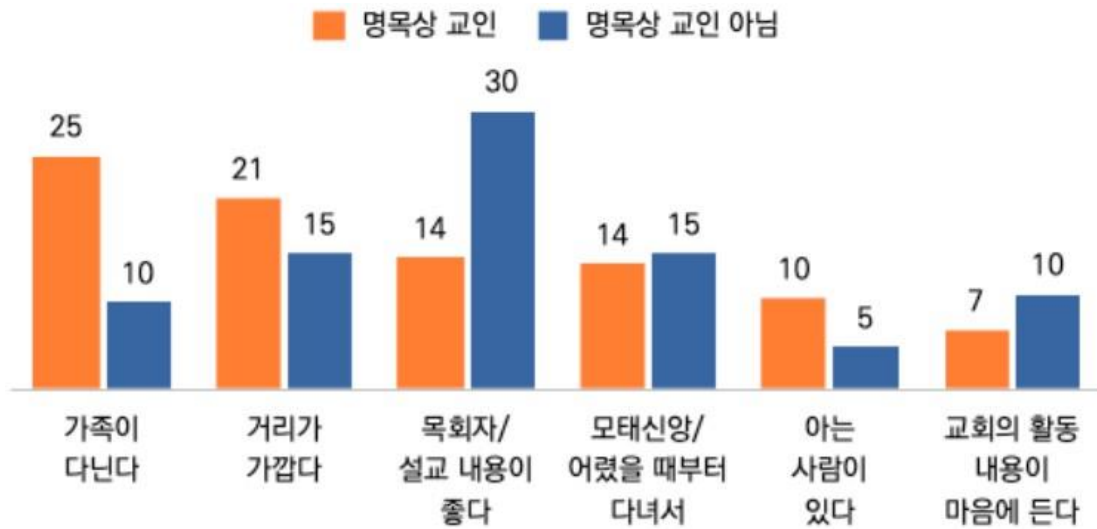
그러나 명목상 교인에 대한 조사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들에게 교회에서 예배 외 다른 활동에 참여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의 결과는 ‘명목상 교인’의 36%가 ‘참여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명목상 교인이 아닌 경우인 76%에 비해서는 많이 낮은 수치였지만, 명목상 교인에 속하는 이들의 경우에도 주일 예배 이외의 다른 교회 행사나 활동이 있다면 36%의 해당하는 이들이 참여의사가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교회 양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을 묻은 결과는 명목상 교인의 경우 50%가 ‘참여 의향 있음’으로 응답하였다.

< 표 7> 교회 활동 및 프로그램 참여 의향



또한 매주 교회 출석은 못하고 있지만 이들이 지금의 교회를 선택한 이유에 대한 응답의 결과는 더욱 긍정적이다. 현재 교회를 선택한 이유로 ‘비 명목상 교인’은 ‘목회자와 설교 내용이 좋다’가 압도적 1위를 차지했으나, ‘명목상 교인’은 ‘가족이 다닌다’ (25%)가 가장 큰 이유였고, 다음으로 ‘거리가 가깝다’, ‘목회자/설교 내용이 좋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모태신앙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다닌 경우’ 14%, 이와 같이 답한 이들도 부모님으로 인해 계속해서 그 교회에 교인으로 적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아는 사람이 있는 경우’ 라고 답한 이들도 10%에 해당되는 것을 보면 명목상 교인에게 ‘가족’이나 ‘아는 사람’ 이 교회에 있다는 것이 교회 선택의 중요한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기존 교회의 부모와의 연결성으로 인한 경우이거나 가족 중 아내나 남편 중 누군가가 먼저 다니면서, 혹은 배우자와 자녀들이 다니는 경우 등 가족으로 인한 교회 연결성이 높다는 결과이다.

< 표 8 > 현재 교회 선택 이유(교회 출석 개신교인,%)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해 볼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족’이라는 소그룹 단위는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도록 하는 중요한 연결 고리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성경적 코이노니아의 회복을 위한 첫 번째 제안을 가족 공동체의 코이노니아 실현으로 꼽은 것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그동안 교회 사역은 연령별, 세대별로 세분화 되어 왔다. 70년대 이후 한국 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성장의 시기를 상징하는 부흥회, 기도원, 수련회, 새벽예배 등 몇 가지 키워드를 생각할 때에 이는 어른 성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 교회학교도 학령별로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등 각 세대별 예배의 부흥을 이루고 있었으나, 교회의 사역은 전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교회학교를 위한 프로그램은 성경학교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지만 교회의 부흥회, 수련회, 기도회는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의례적이었다. 필자도 어린 시절 부모님을 따라 교회 수련회, 부흥회, 기도회 등을 참여하면 때로는

지루하거나 졸음을 참기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부모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며, 깊이와 수준의 차이는 있겠지만 같은 공간에서 동일한 은혜의 경험을 했던 경험이 있다. 또한 우리 가족 외에도 부모님과 함께 참여한 또래 친구들이나 형, 누나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자녀들의 연령에 따라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부모와 자녀의 신앙적 경험 또한 차이가 클 것이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 가족이 함께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신앙적인 모임이 많았던 것과 달리 현대 교회에서는 연령별로 사역과 예배, 프로그램이 세분화되면서 가족의 신앙적 공동 경험의 시간이 현격히 줄어들었다. 각 세대에 맞는 신앙적 경험에 있어서는 세대별 맞춤 사역이 진행되는 것이 분명 긍정적이고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는 부모와 자녀의 신앙적 공감대가 어우러지는 것을 막는 한계를 지녔다고 생각한다.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함께 신앙적인 이야기와 예배, 기도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는 가족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가정에서, 가족 모임 안에서 교회, 예배, 성경말씀, 기도제목, 신앙적인 고민 등을 이야기할 기회가 거의 없는 가족의 경우, 신앙적 공감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이지만 자녀들은 교회를 잘 나오지 않거나,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는 경우, 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성장의 어느 시점에서부터 신앙의 나눔, 공감대 형성이 단절되었고, 부모도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녀들의 마음이 교회로부터 멀어진 것이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코이노니아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율법보다 관계가 더 구속력이 강하다는 것이다. 레너드 스윗 교수는 “예수님은 관계가 율법보다 구속력이 강하다고 역설하셨다. 관계는 제자도의 수준을 기성 종교가 강요하는 어떤 외적인

도덕보다도 더 높여 준다.”²⁵고 이야기한다. 또한 “코이노니아는 원리와 정책과 조직에 헌신된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와 서로에게 헌신된 것인가? ‘공동체의 삶’에 대한 사람들의 문제 중 하나는 그들이 그리스도와의 관계보다는 자신들의 원리대로 살려고 한다는 점이다.”²⁶라고 지적한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가의 문제가 율법을 따르는 것, 종교적인 행위를 지키는 것 보다 더 신앙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가족 안에서 가족의 종교, 부모로부터 물려 받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닌 아버지가 경험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경험, 어머니가 만난 예수님을 가족 안에서 신앙적인 나눔을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 되는 경험이 자녀들의 신앙성장에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다. 가족의 코이노니아는 가족 구성원 중에 구원의 확신이 약한 이들, 자녀들이나 가족으로 인해 교회에 다니게 된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있어서 교회 조직이나 종교적 행위만이 그리스도인의 전부가 아님을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과정이다. 가족이 함께 공통되는 신앙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이다.

(2) 공유와 연합의 코이노니아 실현

앞선 2장에서 코이노니아의 정의를 설명하면서 코이노니아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의미들을 살펴보았다. 교제, 참여, 공유의 의미와 함께 코이노니아는 협력, 통용, 분배의 의미 또한 가지고 있다. 코이노니아의 동사형인 ‘코이노네오’는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눈다’, ‘통용하다’, ‘분배하다’의 뜻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뜻으로 사용되는 코이노니아는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떤 이와 함께

²⁵ 레너드 스윗, *op. cit*, 185.

²⁶ *Ibid.*, 186.

나눈다’ 라는 의미이지만, 때로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써 ‘누가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이에게 나누어 주다’ 의 의미로까지 확장된다.²⁷ 이런 의미로 해석할 때에 코이노니아를 구제와 나눔으로 연결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구제와 나눔의 코이노니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한 지체가 다른 지체에게 한 방향적으로 필요를 제공하는 성격만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을 통용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고,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때에 무엇을 내어놓았는지 그 내용은 다를 수 있었겠지만, 이 과정에서 모든 것을 함께 누리고 함께 사용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 초대교회의 모습에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노력은 보다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지금의 교회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우리가 몰랐던 1세기 교회』²⁸를 저술한 박영호 교수는 초대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연구하기 위해 당시 가장 교회와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사회조직들의 모습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교회라는 조직은 갑자기 새롭게 생겨난 조직이기보다는 기존의 유사한 사회조직의 모습을 모방하기도 하고 운영방식을 적용하면서 교회의 모습으로 갖추어져 갔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닳은 꼴 후보들로 제시하는 몇 가지 사회조직을 소개한다. 먼저는 유대인들의

²⁷ 김성중, *op. cit.*, 20.

²⁸ 박영호, 『우리가 몰랐던 1세기 교회』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21)

회당이며, 두 번째로는 같은 일을 하는 이들의 모임인 일종이 조합이라 할 수 있는 ‘콜레기아’ 다. ‘자발적 조합’ 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회 조직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 다. 이러한 자발적 조합 중의 하나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이 속한 어부 조합이다. 누가복음 5장 6~10절을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 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있다. 여기서 7절에 사용된 ‘동무’ 로 번역된 헬라어 ‘메토코스’ 는 사업상의 동업자를 뜻하는 단어이며, 10절에 사용된 ‘동업자’ 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코이노노이’ 는 같은 일을 하는 조합에 소속된 이들을 뜻하는 단어였다. 이는 코이노니아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다. 바울은 이러한 자발적 조합인 콜레기아와 교회 공동체가 달라야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단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넘어서는 구별되는 고백이 필요하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시며 세상의 통치자시라는 고백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이들의 공동체가 자발적 조합과 다른 점은 그 고백을 통해서 섬김과 헌신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자발적 조합들은 대부분 한 지역 안에서의 조직이었으며, 이들은 다른 지역의 같은 직종의 자발적 조합과 유대관계나 협력 관계를 맺지 않았다. 하지만 초대교회 공동체는 처음부터 지역을 초월하는 유대관계를 가졌고 언제든지 서로의 필요를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동역하는 협력의 관계를 보였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도 여행 중에 방문하게 되는 곳에서는 어느 지역에서든 교회

공동체가 그들을 돌보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도 이방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 연보를 보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필요한 것은 이러한 연합과 협력이다. 교회의 연합을 이야기할 때에 가장 익숙한 것은 교단 차원의 대규모 행사를 진행할 때의 모습이다. 교단과 교단에 속한 교회들, 그리고 교인들의 신앙적인 열정을 다시 일으키고 나라와 민족, 사회적인 이슈들을 위해서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일이고 의미있는 일이다. 하지만 연합과 협력은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그 연합과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가까이 가게 될 때에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많은 교회들이 교회 문을 닫았다고 한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재정 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령화 사회의 가속화 속에서 교회는 더욱 빠르게 고령화 되어가고 있다. 해마다 신기록을 경신하는 낮은 출산율은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음세대가 사라지는 많은 교회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사회학 교수인 조성돈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감리교 목회와 교회의 전망을 하면서 성도들은 점점 더 대형 교회로 몰릴 것이며 중형 교회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 전망한다. “중형 교회는 방향이 매우 애매합니다. 교인수 200명~500명 사이에 있는 교회들인데, 이런 교회들은 자기 색깔 갖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교회들은 대부분 노령화돼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은 노령화 틀을 벗어나기 위해서 합병을 많이 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있고 성장하는 교회라든가, 월세 내고 있었던 교회와 합병을 한다든가 합니다.”²⁹ 교회와 교회의 연합과 협력은 교회 고령화 문제, 저출산으로 인한 교회학교의 붕괴, 청장년과 청년세대의 교회 이탈, 교회 재정 감소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할

²⁹ 웨슬리안타임즈 2023년 감리교회 전망 ② 포스트코로나 2023년, 목회와 교회의 전망
<https://www.kmc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6804>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미 많은 교회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의 돌파구를 교회와 교회의 연합과 협력, 공유의 코이노니아를 통해 지혜롭게 돌파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사역과 나눔의 코이노니아 실현

레너드 스윗 교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타자이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타인들’ - 믿음의 권속 밖에 있는 사람들 - 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알게 된다. 우리는 타인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타자이신 그분과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으로써 하나님께로 간다.”³⁰고 저술하고 있다. 낯선 사람들과의 관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만남,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코이노니아를 말할 수 없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 믿는 자들의 코이노니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느껴지게 되었다. 낯선 이들에게 다가가는 것,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는 것, 그들에게 어려운 율법의 말씀을 강조하시는 것이 아닌, 그들의 삶의 언어, 일상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하시는 것, 그 일들을 통해 코이노니아가 일어난다. 성경적 코이노니아의 세 번째 제안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이 타자에게, 낯선 이들에게 나아가는 것이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삶의 모습은 구제를 통한 섬김의 실천이었다. 이 시대의

³⁰ 레너드 스윗, *op. cit.*, 195

초대교회가 상부상조적 구제 사업으로 펼쳤던 일은 주로 신앙의 박해로 감옥에 갇혀 있는 성도들에게 생활필수품을 공급하며, 석방운동을 전개하고 신앙심을 격려하는 일과 더불어 고아와 기아를 맡아서 양육하는 일이었다.³¹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가족들의 필요를 채우고 돕는 일은 나아가 구제사업과 자선사업 등으로 이어졌다. 성경적 코이노니아는 복음을 통한 낯선 이들과의 만남, 구제를 통한 어려운 이들과의 만남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교회는 선교와 구제 사역에 있어서는 많은 열심을 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기독교 저술가인 톰 레이너는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을 통해서 죽은 교회들, 사라지는 교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가 꼽은 이유 중에 하나는 죽은 교회들은 지역 사회를 외면하는 그들만의 교회였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내부 지향적으로만 예산을 사용했다고 지적한다. 교회가 지역 사회와의 코이노니아를 외면한다면 교회는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성경적 코이노니아는 교회가 선교와 구제, 복음을 전하는 일과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도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전도하지 않고, 구제사역을 하지 않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 이후 교회 재정의 악화는 선교사 지원을 줄이고 구제 예산을 줄이는 것으로 이어졌다. 목회자의 사례와 교회 운영을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외면할 수는 없지만 성경적 코이노니아의 핵심은 복음의 전파, 전도와 선교, 구제와 이웃 섬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³¹ 이경순,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독교 사상을 통한 사회복지실천에 관한 연구」, 51

제 IV 장

성경적 코이노니아의 적용 : 중앙감리교회 사례를 중심으로

필자가 사역하고 있는 중앙교회를 간단히 소개하고 교회 성도 구성의 특징을 먼저 설명하고자 한다. 중앙교회는 기독교대한 감리회 서울연회에 속해 있는 교회로 1890년 감리교 첫 선교사였던 아펜젤러 선교사에 의해 창립된 역사가 깊은 교회다. 종로 인사동 지역에 위치한 중앙교회는 1896년 대한제국 고종 황제 시기에 서울의 정중앙임을 인증하는 표지석이 세워져 있는 ‘진짜’ 서울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이다. 130년을 넘는 오랜 역사만큼이나 가문 대대로 종로 지역에서 살아온 가정들이 많다. 하지만 지금의 교회 인근 지역인 종로 일대는 사무공간인 고층 건물들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가들이 대부분이며 교인들 가운데도 교회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어린 시절은 종로에서 보냈지만 현재는 서울의 다른 지역, 수도권 등 교회와 거리가 떨어진 지역에서 거주하며 주일에만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대부분이다. 교회학교에 출석하는 자녀들이 있는 청장년 가정의 경우 부모님, 조부모님 세대부터 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가정이 많으며 이들 가정들도 대부분 교회와는 거리가 조금 있는 서울의 다른 주거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교회학교의 경우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중학교 이상의 연령이 되기 전에는 학생들끼리 교회학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중앙교회가 서울의 중심지역, 종로구의 사무공간에 위치한 것과 함께 또

한가지 지리적인 특징을 설명하자면, 중앙교회는 전통문화의 거리인 인사동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 바로 앞 골목은 인사동 메인 거리로 연결되며 주말이면 인사동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는 지역이다.

< 사진 1 > 서울 중심점 표지석(중앙교회 1층에 위치)



중앙교회는 외형 또한 특이점을 가지고 있다. 종로 지역의 다른 사무공간 건물들과 같은 일반 빌딩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빌딩 10층, 11층, 12층을 교회 예배당과 식당,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하 1층을 교회학교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머지 공간은 일반 사무실로 임대하고 있어 평일의 교회와 교회 주변의 모습은 직장인들로 가득하며, 주말에는 인사동과 종로 지역을 찾는 관광객과 외국인, 가족 단위의 행인들로 가득하다. 중앙교회 대부분의 교인들은 주일에만 교회를 찾는 편이어서 간혹 평일 행사나 목회자와의 상담으로 인해 주중에 교회를 찾게 되면 주일과 다른 모습에

놀라는 청년이나 성도들도 있다.

이러한 역사적, 지리적, 외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중앙교회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성경적 코이노니아를 실현하며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중앙교회에서 진행해온 사역들을 통해서 그 고민의 과정과 결과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물론 기존의 다른 교회들에서도 진행해온 동일한 사역들일 수 있다. 하지만 중앙교회의 여러 특징적인 상황 안에서 성경적 코이노니아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사진 2 > 중앙교회 외관



< 사진 3 > 중앙교회 예배당(가우처기념예배당)



1. 전교인 수련회를 통한 코이노니아

가족이 함께 신앙적인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전교인 수련회이다. 온 교회 구성원이 함께 수련회를 가는 것이 예전이나 그렇게 가능했다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전교인 가족 수련회는 특별한 코이노니아 경험을 제공한다. 바울이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함께 공통적인 것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누군가와 같은 것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나눔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앞서 2장을 통해 성경적 코이노니아를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공동의 경험이 일어나며 코이노니아를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수련회이다. 김성중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전환기 시대의 수련회는 코로나 이전과는 달라져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다양한 내용으로 수련회를 기획하고 성도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도록 수련회를 구성하라고 조언한다. 수련회 컨셉에 따라서는 “서로의 힘든 이야기를 꺼내고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는 ‘내면상담형 수련회’, 신나게 운동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의 감사함을 깨닫는 ‘운동형 수련회’, 또한 국내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기독교 역사를 배우는 ‘성지순례형 수련회’, 미자립 교회에서 봉사하는 ‘봉사형 수련회’, 하나님이 주신 자연 속에서 묵상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힐링형 수련회’ 등 다양한 수련회”³²를 소그룹으로 진행하고 이와 같은 수련회에 성도들이 선택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수련회의 컨셉을 적용하면서, 동시에 교회 공동체가 모두 함께 이와 같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전교인 수련회가 있다면 어떨까 하는 고민과 함께 전교인 수련회는 준비되어야 한다.

전교인 수련회를 진행한다고 해서 교회학교 부서별 성경학교,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를 제한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개별적인 세대별, 공동체별 수련회와 같은 프로그램도 진행되어야 한다. 대개의 경우 수련회는 학생들의 방학기간 중인 여름 계절에 진행되는 편이다. 교회학교 부서 사역의 경우, 중학생만 되어도 학원 일정, 가족 여행 일정 등이 많아진 최근에는 모든 구성원들이 수련회 참석이 가능한 일정을 잡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족 코이노니아, 교회 전 세대가 함께 공동의 경험을 공유하는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전교인 수련회는 모든 교회가 진행해 볼만한 사역인 것임에는 틀림없다.

³² 김성중, *op.cit*, 16.

전교인 수련회를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한계도 있는 것도 분명하다. 가장 큰 어려움은 앞서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교회학교의 경우 가족이 함께 하는 수련회보다는 또래의 친구들이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담당 목회자에게도 부서별 수련회는 부서의 단합과 분위기를 만들어가기에 가장 좋은 사역의 시간이기도 하다. 이 중요한 사역을 전교인 수련회로 지나쳐 버리기에는 아깝다고 생각되는 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또 한가지 한계는 비용과 시설에 대한 어려움이다. 공동체별, 부서별 수련회를 진행할 때에 부서별 예산 안에서, 부서 인원을 적당히 수용할 수 있는 수련회 장소를 선택할 것이다. 교회 구성원에 따라서 수용인원에 대한 고려는 모두 다르겠으나, 전교인 수련회로 진행하게 될 경우 장소 섭외에 있어서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아지고, 비교적 넓은 장소를 선택해야 하기에 비용면에서도 더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장소에 대한 예산뿐만이 아니라 부서별 수련회가 7,8월 일정을 나누어서 진행될 경우 교회 차량이나, 기타 교회 장비 등의 이용에 있어서도 나누어 사용이 가능하지만, 같은 일정의 전교인 수련회로 진행할 경우 차량 운용에 있어서도 더 많은 차량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도 비용의 증가를 막을 수 없게 한다.

이 밖에도 실제 전교인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컸던 것은 전교인 수련회 안에서 일정을 구성하는 문제였다.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수련회이기에 전 연령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했고, 수련회 안에서 교회학교 부서별, 청년, 장년의 연령별 맞춤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 또한 필요한 부분이었다. 이 때 가장 큰 어려움은 사역자들과 부서별 교사들의 참여의 한계였다. 가족 코이노니아, 전교인의 공동체 코이노니아를 위한 수련회의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였지만, 자신의 봉사와 섬김의 자리로 인해서 그 안에서 함께 하지 못하는 이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한계와 고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인 수련회는 가족 코이노니아, 교회 공동체 코이노니아를 위해서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평상시 주일의 교회 모습을 생각할 때에 교회학교 자녀들, 청년 자녀들을 둔 가정의 경우,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경험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 주일에 교회에 자녀들을 데리고 오면 해당되는 교회학교 부서에 아이들을 보내고 부모들은 11시 예배나 대예배, 또는 본예배라 불리는 예배에 참석한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식사 시간에 만나거나, 아니면 식사도 각 부서별, 연령별로 하게 되고 모든 일정이 끝난 뒤에 다시 만나 집으로 돌아간다. 함께 교회에는 오지만 교회 안에서 함께 하는 시간은 많지 않은 것이다. 특히 신앙적인 경험을 함께 하는 시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전교인 수련회 자리에서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

중앙교회에서는 2018년도 전교인 수련회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 기간 중에는 수련회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코로나19가 지나간 2023년 5년 만에 전교인 수련회를 진행하였다. 이 때의 사역 안에서 어떻게 성경적 코이노니아, 가족 공동체의 코이노니아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실제 어떠한 모습으로 진행되었고 어떤 결과를 내었는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중앙교회 담임자인 이형노 목사는 코로나19가 마무리되어가는 2022년 말 새해 예산 계획을 진행하면서 전교인 수련회 계획을 사역자들과 기획위원들과 공유하였다. 그리고 2023년 여름에 전교인 수련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준비하였다. 필자는 전교인 수련회의 전체 총무로 수련회 기획과 진행을 총괄하였다.

준비 과정에서 가장 먼저 고려한 것은 수련회의 컨셉트였다. 코로나19기간을

지나면서 단체 활동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아직은 조심스러운 시기였으며, 공동체성이 많이 약해져 있던 상황에서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수련회 컨셉트를 어떻게 정하는가가 중요한 부분이었다. 회의를 통해 이번 전교인 수련회는 성도들이 온 가족이 휴가를 보내는 것과 같은 컨셉트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결정의 배경에는 기존의 수련회에 대한 선입견을 깨트리고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자녀들의 방학 기간 중 가족 휴가 일정을 내는 것으로도 벽찬 시기에 교회 수련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뒤에 이어서 다를 배화교회와의 통합의 과정의 하나로 자연스럽게 교회 간,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소 섭외였다. 한정되어 있는 교회 예산 안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휴가 컨셉트로 진행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전에 수련회를 진행했던 장소들, 주변 목회자로부터 추천받은 장소들, 인터넷 검색, 대형 콘도 등 여러 장소들을 물색하였고, 답사도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2023년 1월 경 답사를 통해 ‘천안 상록리조트’를 수련회 장소로 결정하였다. 장소 결정의 이유는 휴가 컨셉트를 구현할 수 있는 주변 환경, 콘도형 숙소, 공동체 만의 자유로운 집회가 가능한 강당, 교회학교 부서별 프로그램을 위한 별도 공간 및 물놀이 시설, 어른들의 관광이 가능한 주변 관광지 유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또한 천안에 위치한 상록리조트는 독립기념관과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독립기념관 선택관광 일정을 프로그램에 포함하였다. 장소 선정을 위한 고려 항목에는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교회 예산 안에서 진행이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포함되었다. 장소 결정 이후에는 빠르게 성도들에게 광고하고 일정을 공유하였다. 여름 휴가 일정을 몇 개월 전부터 잡는 경우가 많기에 휴가 컨셉트로 진행되는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 미리 일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홍보 영상 공유와 함께 배너 제작 후에 신청을 받기 시작하였다.

전교인 수련회의 이름은 중앙교회의 비전선언인 ‘주의 꿈을 품고, 세상의 빛으로’에서 ‘꿈’과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꿈빛캠프’라 이름하였다. 이는 2018년도에 진행하였던 코로나 이전 전교인 수련회 때 사용한 이름과 같은 이름을 사용하였다. 이전 전교인 수련회 때는 ‘중앙가족 꿈빛캠프’라 이름하였지만, 2023년도에는 배화교회와의 통합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기에 ‘중앙배화 꿈빛캠프’라 이름하였다.

일정은 초, 중, 고 모두 방학에 해당하는 7월 27일(목)~7월 29일(토)로 정했으며, 금요일과 토요일을 포함하여 사정상 휴가를 내지 못한 경우에도 1박 2일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장소 결정과 홍보에 이어서 수련회 참여 인원들의 연령, 가족 구성에 따른 프로그램 구성을 준비하였다. 프로그램 구성이 휴가 컨셉트에 맞도록 뽀뽀하게 느껴지지 않으면서도 가족 구성원들의 다양한 연령에 맞춰서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이를 위해서 교회학교의 별도 프로그램 운영 시간을 두었고, 이 시간을 활용하여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을 편성하였다.

< 사진 4 > 중앙배화 꿈빛캠프 홍보 배너



< 표 9 > 중앙배화 꿈빛캠프 일정표

일정표

	27일 (목)	28일 (금)	29일 (토)
6:00		기상	기상
7:00		아침묵상 (전체 프로그램/ 강당)	아침묵상 (전체 프로그램/ 강당)
8:00		아침식사	아침식사
9:00			폐회예배 및 경품추첨 (전체 프로그램/강당)
10:00		성경학교2 유치부 (속소) 아동부 (소강당)	짐정리 및 숙소정리
11:00		중고등부 'We are the One' (속소) 장년 프로그램 공동체 Talk '나와 우리' (강당)	출발
12:00	교회출발 (13:00)	점심식사	점심식사 (병천순대타운 이동)
13:00	수련회장소로 이동 천안상록리조트 집결 (15:00)		교회도착 (15:00 예정)
14:00		유치부 & 아동부	
15:00	도착기도 및 OT 숙소집플기	수영장 (양재아쿠아리움)	
16:00	'조 안에서 기뻐해' (전체 프로그램/강당)	중고등부 웨이크보드 (천안 캐미플 워터파크)	
17:00		선택 프로그램 - 독립기념관 - 화수목 수목원 - 성회파출 및추기경관	
18:00	저녁식사	개인정비, 자유시간	
19:00	저녁 집회 1 (강당) 유치부, 아동부 성경학교 1 (소강당)	저녁 집회 2 (강당) 유치부, 아동부 성경학교 3 (소강당)	
20:00			
21:00	중고등부 'Holy Talk talk'(소강당) 청년부 '환상의 짝꿍'(청년부 숙소)	'아름다운 동행' (전체 프로그램/강당)	
22:00	취침	취침	

전체 모든 연령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전체 레크리에이션, 저녁 집회, 결단과 나눔의 시간, 아침 묵상 등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교회학교 아이들과 청년, 청장년, 장년 세대가 고르게 포함될 수 있도록 조편성을 하였으며, 각 조 안에서 가족이 한 조 안에서 같은 경험을 하며 교체할 수 있도록 가족 단위로 편성하는 것과 함께 교회 소그룹인 샘터 단위로 조를 편성하였다. (중앙교회에서는 감리교 소그룹 조직인 속회를 ‘샘터’라 명명하였다.)

2박 3일의 일정 중 두 번의 저녁집회는 모든 참여 인원이 함께 모여 찬양하며, 찬양 후에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시간을 갖고 이후 설교 시간에는 각 공동체에 맞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교회학교 별도 모임 장소로 이동하여 설교를 들도록 하였다. 둘째 날 저녁 집회 후에는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촛불 십자가 가운데에서 결단의 기도와 축복의 기도 시간을 가졌다. 매일 아침 진행된 아침 묵상에서는 유치부, 아동부도 어려움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림 묵상을 진행하였으며, 예수님 그림에 색칠을 하며 묵상하는 활동의 경우 예상 외로 어른 성도들의 경우에도 즐겁게 참여하였다. 전체 참여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과 함께 부서별, 세대별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교회학교는 별도의 공간에서 개별 활동 시간을 갖는 것과 함께 휴가 컨셉트에 맞추어 유치부와 아동부의 경우, 수영장 물놀이를 진행하였고, 중고등부, 청년부의 경우 인근 웨이크보드 시설로 이동하여 수상 액티비티를 진행하였다. 교회학교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장년들도 별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참가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미리 모바일 심리검사를 진행하였고 전문 강사를 통하여 심리분석과 상담을 진행하였다. 장년 참가자들의 경우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또한 장년들의 경우 선택 프로그램 일정을 가졌는데, 천안 독립기념관 방문팀과 인근 수목원 방문팀으로 선택하도록

시간을 주었고, 외부에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리조트 안에서 사우나 등의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체적인 시간 일정을 촉박하지 않게 구성하여 쉼을 누리며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돌아오는 날 점심의 경우, 인근 지역의 맛집을 찾아 외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0분 거리에 병천 순대거리가 위치하고 있어 교회로 이동하기 전 함께 이동하여 점심식사를 하였으며, 순대국을 원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 순대국과 중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준비 과정부터 고민했던 것 중 한가지는 수련회 일정 중 요일에 대한 고민이었다. 목요일부터 시작하여 토요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진행하였으나, 금요일에 시작하여 주일까지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전교인 수련회로 진행하기에 수련회 마지막 날 주일예배를 수련회 장소에서 드리는 부분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었다.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수련회에 참석하지 않는 성도들도 있기에 목요일부터 2박 3일의 일정으로 수련회를 진행하고 주일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온전히 평일을 포함하는 휴가 일정을 내기 어렵거나 적극적으로 일정을 조정하지 않은 성도들이 많아 참석하지 못한 가정들이 많이 있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 사진 5 > 중앙배화 꿈빛캠프 티셔츠



< 사진 6 > 중앙배화 꿈빛캠프 단체사진



< 사진 7,8 > 중앙배화 꿈빛캠프 결단의 시간



< 사진 9 > 중앙배화 꿈빛캠프 아침 묵상 (그림묵상)



평가 및 개선점

2023 중앙배화 꿈빛캠프는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함께 즐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최대한의 노력을 쏟았다. 가족들이 같은 신앙적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였다. 그러면서도 교회학교 부서와 연령별 공동체가 각각에 맞는 수련회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참여자들의 의견을 묻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좋았으며, 교회학교 자녀들을 둔 부모의 경우 자녀와 함께 같은 공간에서 수련회에 참여하면서도 시간에 따라 때로는 가족이 함께 수련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때로는 자녀와 떨어져 부모에게 맞는 신앙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좋은 피드백을 받았다.

가족이 함께 수련회에 참여하는 것을 통한 가족 코이노니아의 경험과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린 세대와 청장년 중간 세대, 그리고 교회학교 다음세대가 함께 하는 것은 모두에게 필요한 교회의 중요한 신앙적 경험의 공유과정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사역자들, 스태프들의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 교회 공동체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주일에 모두가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고 식사도 하고 돌아가지만, 얼굴 마주칠 기회도 없고, 대화 나눌 기회는 더더욱 없는 요즘의 교회 모습을 생각해보면, 전교인 수련회를 통한 교회 공동체의 교체, 공동의 신앙 경험, 교체와 공유의 코이노니아의 경험은 모두에게 소중한 시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와 개선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교회 공동체의 공동의 신앙적 경험, 그 안에서 성경적 코이노니아의 실현을 기대하였지만, 교회학교의 연령에 따라서는 개별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다. 이번 수련회에서도 저녁 집회 시간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 중고등부의 경우 장년, 청년과 함께 집회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나, 아동부, 유치부의 경우는 그 시간에 별도의 프로그램 진행이 불가피하였다. 설교 전 찬양까지는 함께 찬양하였지만, 말씀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동부, 유치부 부서의 별도 공과,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로 인해 아동부, 유치부 교사로 섬기는 이들이 함께 저녁 집회에 끝까지 참여할 수 없었으며, 사역자들 또한 프로그램을 따라 나누어

배치할 수밖에 없었다. 모든 세대가 함께 하기 위해 일부 공동체의 양보와 희생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으며, 섬기는 이들의 헌신이 필요했다.

이와 함께 전체 수련회를 진행함에 있어서 사역자와 스텝들이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았던 것 또한 개선이 필요한 점이다. 가족 단위의 참가자들이 개별 차량으로 이동하길 원하는 경우가 많았고, 숙소 사용에 있어서도 각 가족별, 연령별 요구에 맞추어 편성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가족 단위의 숙소 사용을 원칙으로 하였고, 4인 가족 우선으로 방을 배정하였지만, 중고등부의 경우 학생들, 교사들이 부서의 별도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었고, 가족 수련회로 권면했지만, 가족이 전체 다 같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가족 단위 프로그램 진행에도 한계가 있었다. 휴가 컨셉트의 수련회로 준비하였지만 수련회인만큼 영성훈련, 신앙 성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스텝들이 고심한 부분이었다.

중앙교회는 교회학교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전교인, 전세대가 함께 신앙의 경험, 교회 공동체의 소속감을 느끼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 전교인 수련회는 2018년도 진행한 이후 현장 수련회는 5년만에 진행하였지만, 코로나 기간 중에도 온라인 전교인 수련회를 진행하였으며, 이 때에도 유튜브와 ZOOM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를 진행하였으며, 온라인 상에서도 온 가족 레크리에이션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이와 같이 수련회를 비롯하여 전교인 체육대회, 전교인 윗놀이 대회 등, 교회 모든 세대, 모든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 사진 10 > 2018년 중앙가족 꿈빛캠프



< 사진 11, 12 > 2021년 중앙가족 온라인 수련회



2. 교회 통합 속에서의 코이노니아

중앙교회는 2023년 배화교회와의 교회 통합을 진행하였다. 배화교회는 배화여자대학교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2016년 설립되었다. 본 학교 교목으로 섬기고 있는 김영석 목사가 책임을 맡고 독립교단 소속으로 배화여자대학교 내에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왔다. 이후 전 총장과 학교 직원들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교회의 여러 상황의 변화를 거치면서 이후 교직원이나 학생보다는 함께 교회를 시작한 청장년 세대 중심으로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지나가는 중에 코로나19 시기를 맞게 되었고, 이후 새로운 도약을 위해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며 중앙교회 이형노 목사와의 대화 속에서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중앙교회와 교회 통합을 결정하게 되었다.

배화교회는 가장 연령이 많은 성도가 50대 초반인 청장년 중심의 젊은 교회이다.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신앙생활을 기존의 기성 교회에서 시작하였고 본 교회에서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던 성도들이다. 이러한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갈망과 새로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소망을 품고 찾아온 교회가 배화교회이다. 처음의 중앙교회와 배화교회의 연합 논의는 배화교회를 위한 공간의 공유에 대한 부분에서 시작하였다. 배화여자대학교 내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안정감이 약해졌고 새로운 예배 장소로서 중앙교회와의 접점을 모색하였다.

중앙교회 이형노 담임목사는 기획위원들과 이 문제를 공유하였고 중앙교회의 예배와 시간이 겹치지 않는 시간, 장소의 협조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 모두 동의하였다. 중앙교회는 본당에서 드리는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는 오후예배와 지하 1층에서 1시 30분에 드리는 청년부 예배의 공간과 시간이 겹치지 않는 선에서 지하 1층의 별도 예배 공간과 사무실 공간, 그리고 소그룹 모임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무리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중앙교회와 배화교회는 각각 5명으로 구성된 TFT 회의를 구성하였고 2022년 10월 2일 첫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중앙교회 목회자 자격으로 TFT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처음 모임에서 공간 공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주된

안건이었으나 배화교회 김영석 목사는 한 공간 안에서 두 교회가 계속 운영되는 것은 모두에게 불편한 일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며 공간 공유로만 협력할 것이 아닌 한 공동체로 통합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중앙교회와 배화교회의 통합은 단순히 공간을 공유하는 기존의 공간 공유 교회의 협력 모습이 아닌 하나의 교회로의 통합을 지향하게 되었다.

앞서 중앙교회에 대해 설명한 것과 같이 중앙교회는 성도들의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되는 교회이다. 성도들의 자녀, 자녀 세대인 청장년의 자녀들이 교회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가정이 많아 다음 세대 사역, 교회학교 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이다. 교회학교의 역사와 전통, 교육부의 시스템은 잘 갖추어져 있지만 참석하는 교회학교 학생들이 많지 않고 이로 인해 다양한 사역을 진행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중앙교회는 첫 TFT 회의를 통해 교회학교의 통합부터 진행하는 것에 대해 제안하였다. 배화교회는 별도의 교회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공간의 문제도 겪고 있었기에 이러한 제안은 중앙교회와 배화교회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는 좋은 신앙생활의 터전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배화교회 TFT 위원들이 갖고 있는 우려 사항은 배화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특수성이 유지되는 것에 있었으며, 중앙교회 TFT 위원들이 우려하는 점은 중앙교회는 130년이 넘는 역사가 깊은 교회이며 연령이 높은 성도들이 많아 갑작스러운 변화를 수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이후로도 정기적으로 TFT 회의를 갖고 통합을 준비하였으며 TFT의 이름도 중앙배화 통합TFT로 정하였다. 중앙교회와 배화교회는 두 교회의 통합의 과정에서 서로 적지 않은 부분을 내려놓고 양보하였다. 우선 배화교회는 주일 본예배의 시간을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30분으로 이동하였다. 기존의 주일 일정이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식사 후에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는 것이었으나, 공간 사용의 문제로 인해 먼저 11시에 소그룹 모임을 갖고 점심식사 후에 오후 1시 30분에 주일 본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양보하였다. 중앙교회는 중고등부 예배실을 배화교회의 메인 예배실로 제공하였으며 이로 인해 주일 공간 사용시간을 12시 20분 이전에 마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배화교회의 소그룹 모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교회학교의 소그룹 공간 사용도 조정하였다. 각 교회는 12월 당회를 통해 통합의 모든 계획을 전체 성도들과 공유하였고 중앙배화 교회 통합의 로드맵을 계획하였다.

2023년 1월 1일부터 배화교회의 예배가 중앙교회에서 진행되었다. 그리고 1월 8일부터는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의 교회학교에 배화교회 학생들과 아이들이 참여하였다. 교회학교 운영 예산에 대한 부분을 배화교회도 협력 가능한 선에서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주차 봉사와 식당 애찬 봉사에도 배화교회 성도들이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공간 공유와 함께 교회학교 연합이 이루어졌고 교회학교는 겨울 수련회와 겨울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학생들과 아이들이 쉽게 친해질 수 있게 되었다. 교회학교 안에서 두 교회의 코이노니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교회학교 자녀들을 둔 배화교회 성도들도 새로운 교회공간에서의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갔다. 교회학교가 통합 운영되었음에도 청년부는 각각의 다른 예배를 섬기고 있었지만, 청년부는 겨울 수련회를 연합으로 진행하면서 코이노니아의 과정을 조심스럽게 진행하였다.

배화교회 성도들의 경우 변경된 예배 시간, 주일 일정 등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었고, 중앙교회의 경우 공간 사용, 시간 배정 등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들도 있었다. 주차 공간의 협소나 식당 공간의 협소 등 늘어난 인원에 대해 불편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를 수용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통합의 과정을 진행하였다.

이후 청년부의 통합을 위해 TFT위원으로 각 청년부 회장이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지하 공간에서의 배화교회 주일 예배를 중앙교회 오후예배와 통합하여 1시 30분 11층 본당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한 준비 과정으로 5월경 중앙배화 연합예배를 1회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름은 중앙배화 하나됨 예배라고 정하였고 이를 위해 연합 찬양팀을 구성하였다.

청년부의 통합 과정에서는 약간의 진통이 있었다. 중앙교회와 배화교회의 통합 주일예배는 오후예배와 통합하여 1시 30분에 진행하는 것을 계획하였고, 1회적인 연합 예배 후에 7월부터는 완전한 통합예배로 진행하기로 결정되었는데, 이에 대해 중앙교회 청년들의 이견이 있었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중앙과 배화의 청년들끼리 연합하는 청년들만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다. TFT 결정대로 오후예배까지 통합하는 것은 청년들만의 예배가 아닌 어른들, 다른 세대 누구나 참여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기에 기존 청년부만의 공동체성이 강한 청년부 예배와는 달라지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년부 담당 사역자로 섬기고 있었던 필자는 청년 한 명 한 명을 만나 교회의 비전을 설명하고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노력하였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오후예배 회중인 장년 세대들에게도 상실감이 있는 것은 분명했다. 자신들의 예배의 자리를 기꺼이 다음 세대, 젊은 세대를 위해 내어 준 것은 중앙교회 어른 성도들의 큰 희생이었다.

중앙교회와 배화교회의 통합의 과정은 성경적 코이노니아가 교회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실현되도록 하는 시도였다. 코이노니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관계 맺고 그 안에서 교제하며 언약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허락해 주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언약의 관계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닌 사람과 사람, 그리고 그 안에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교제하고 관계 맺는 것이 바로 성경적 코이노니아다. 교회와 교회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초대교회 공동체와 기존의 다른 초대교회 시대의 사회적 조합과의 중요한 차이는 이것이다. 그 안에 성령을 통해 교제가 일어난다. 사회적 조합은 자신들의 이익과 생각에 따라 연합하는 공동체이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자신들이 손해를 보게 되어도, 자신들의 상황은 어려울지라도, 다른 지역의 교회를 돕기 위해 연보를 하였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위해 기꺼이 재정과 공간을 내어주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교회와 교회의 코이노니아였다.

중앙교회와 배화교회의 통합은 이러한 교회와 교회의 코이노니아가 경험되는 과정이었다. 각자의 중요한 부분들을 내려놓았다. 필자는 중앙교회와 배화교회의 첫 연합 예배의 설교를 맡게 되었는데, 이 때 나누었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때의 합력이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는 ‘쉬네르게오’ 인데, 이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힘을 합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work together’ 즉 ‘함께 일한다’ 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다. 중앙교회와 배화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함께 일하는 것, 함께 사역하며 공동의 은혜의 경험을 쌓아가는 것, 이것이 중앙교회와 배화교회의 코이노니아다.

< 사진 13 > 2023년 중앙배화 하나됨 예배 순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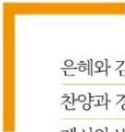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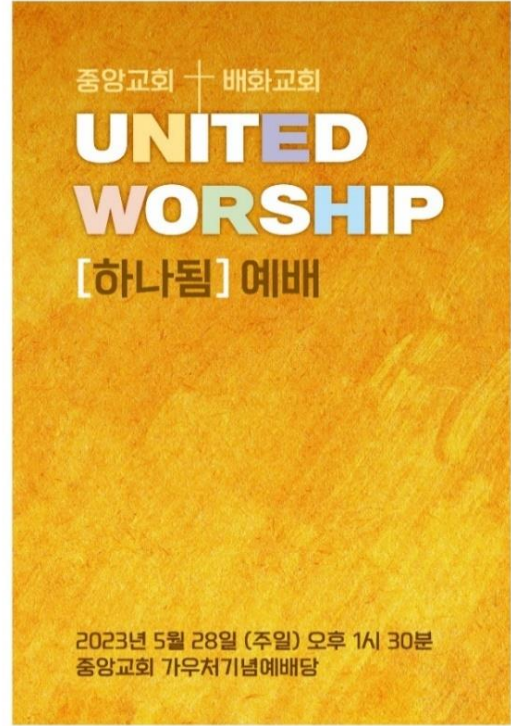
알리는 말씀 Church Announcement

- 1.
- 2.
- 3.
- 4.

기도제목 Prayer Concern

중앙교회와 배화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1.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2. 두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3. 두 교회의 성도들이 배려와 감사, 삼김과 헌신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가도록



은혜와 감사로,
찬양과 경배로,
계시와 반응으로,
넘치는 예배!

아버지께 필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요한복음 4:23

존 맥아더 목사는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하여 구원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예배하라]
잠깐 예배를 경험하는 사람들, 그들이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슴을 알 수 없습니다.
살아 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예수의 심장을 가진 젊은이들이 살아 있는 예배를 향해 첫 발을 내딛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중앙교회와 배화교회가 함께 하는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형노 목사 중앙교회담임목사

[예배순서]

- 입례..... 예수 우리 왕이여 김영석 목사
- 찬양..... 인라이프 연합찬양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봐어도
우리가 꿈꾸는 나라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 기도..... 노준영 집사
- 특송..... 기대 연합청년부
- 광고..... 김영석 목사
- 성경봉독..... 한혜수 청년
- 설교..... 이희문 목사
- 결단찬양..... 우리 다같이
- 축도..... 이형노 목사

교회 통합의 과정을 지나오면서 깨닫게 된 것은 힘을 합하고 합하여, 내 힘이 더 들어가는 합력이 아니라, 오히려 내 힘을 빼고, 내 의견을 내려놓고, 내 기득권과 내 편리함을 내려 놓을 때, 힘을 빼고 빼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함께 일함’ 쉬네르게오가 일어난다는 것이었다. 청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청년들의 생각에 공감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사진 14 > 중앙배화 하나됨 예배 후 기념 사진



이후로 7월부터 청년부의 통합, 예배의 통합이 이루어졌으며, 앞서 가족 코이노니아의 이야기에서 설명한 중앙배화 꿈빛캠프도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었다. 청년부는 별도의 연합 수련회를 진행하였으며 청년부의 통합, 그리고 기존 성인 성도들도 배화교회 42명의 성도가 이명 및 입교를 진행하면서 12월 당회를 통해

행정적인 통합을 이루었다. 재정에 있어서도 배화공동체를 위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통해 행정적으로는 통합의 과정을 마무리하였다.

< 사진 15 > 중앙배화 연합 청년부 구글 설문 결과



< 사진 16 > 중앙배화 연합 청년부 여름 수련회



여전히 마음 안에서의 통합의 시간은 더 필요해 보인다. 완전한 한 공동체, 하나의 교회로의 통합을 위해서 더욱 필요한 것이 성경적 코이노니아다. 통합의 단계를 하나하나 지나온 2023년 한 해는 프로그램으로서의 코이노니아를 많이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두 교회에서 다른 배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이들이 동일한 은혜의 경험을 공유하고, 같은 사역에 참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중앙교회와 배화교회는 하나님의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다.

3. 선교 및 지역 섬김을 통한 코이노니아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닐 것이다. 각 교회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마다의 사명을 붙잡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선교는 앞서 성경적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언급한대로 예수님께서 낫신 이들에게 나아가신 것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타인들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적극적인 사역이다. 중앙교회도 선교사 파송, 재정적인 후원, 기아대책 결연, 선교사와 비전교회 후원, 단기 선교 등의 다양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특별히 성경적 코이노니아의 적용과 관련해 소개하고자 하는 부분은 중앙교회의 교회학교, 청년부, 장년의 연합으로 진행하는 단기선교에 대한 것이다. 오래전부터 청년 중심의 단기선교와 선교지 교회 개척과 건축, 의료선교 등의 단기 선교들을 진행하여 왔지만, 2018년부터 중앙교회가 중점적으로 진행한 단기선교 사역은 교회학교 중심의 세대연합 단기선교이다. 필리핀 앙겔레스 지역의 선교사님과 선교센터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의 여러 사역을 섬겼다. 아동부, 중고등부의 교회학교 학생들과 청년부, 그리고 장년을 포함한 교회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단기 선교팀을 2023년까지 세 차례 파송하였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해외 단기선교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다시 교회학교 연합 단기선교를 재개하였다. 단기 선교 사역은 나라와 지역, 그리고 팀 구성에 따라 사역의 내용이 확연히 차이가 나게 된다. 중앙교회의 교회학교 중심의 세대 연합 단기선교는 팀원 구성상 이동 시간이 길거나, 접근이 불편한 지역, 치안이 위험한 지역, 사역의 강도가 높은 내용의 사역은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세대 간 교제, 부서 간 교제와 같은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나는 선교지에서의 현지 지체들과의 소중한 코이노니아의 경험 또한 빼놓을 수 없다. 교회학교 학생들의 경우 부모가 함께 가지 않고 자녀들만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현지 출입국에 있어서 복잡한 행정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학생들의 피드백이 좋은 편이어서 해마다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청년부의 프로그램의 하나로 단기 선교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동부, 중고등부 시기에 단기선교를 경험하는 것은 신앙 성장에 있어서도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또한 선교지의 현지인들과 선교지의 같은 또래 학생들과의 만남의 시간은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성경적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도록 이끌어준다.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통해 경험하는 코이노니아는 성경 속 예수님이 이루셨던 코이노니아의 모습이다. 낯선 이들에게 다가서는 것, 그리고 복음을 통해 접촉하는 것, 함께 먹고, 함께 즐기고, 함께 공감하는 것을 통해 코이노니아가 일어난다.

< 사진 17 > 2018, 2019 중앙교회 교회학교 연합 단기선교 로고



< 사진 18 > 2019 중앙교회 교회학교 연합 단기선교 사진



< 사진 19 > 2023 중앙교회 교회학교 연합 단기선교 사진



중앙교회가 위치한 지역적 특징을 앞서 소개하였다. 중앙교회는 인사동 거리와 연결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부활절 계란 전도와 정기 노방전도를 인사동 거리에서 진행해왔으며, 인사동 전통문화보존회와 연계하여 인사동 전통문화축제에 교인들이 함께 참여하며 지역 사회와의 접점을 마련하며 지역 섬김의 사역을 실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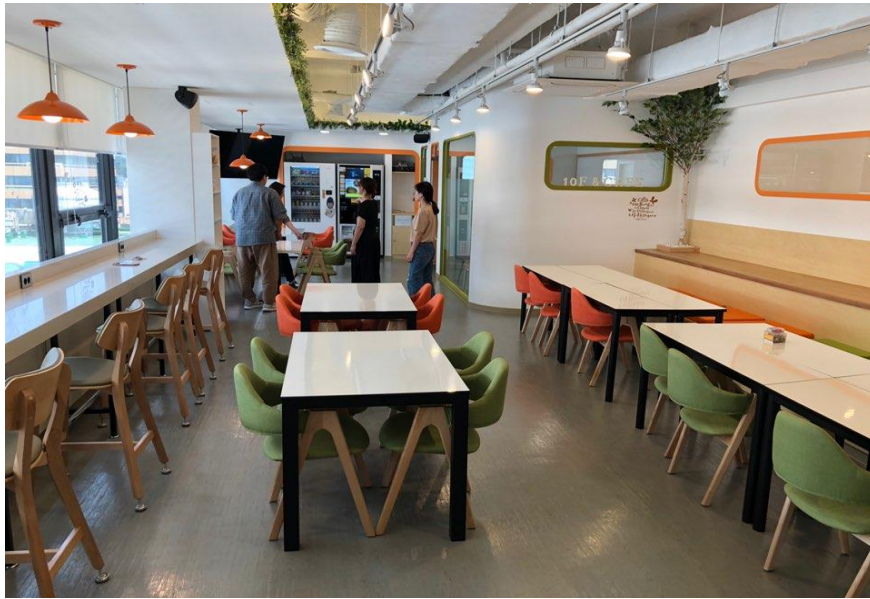
< 사진 20,21 > 인사동 전통문화축제 참여



< 사진 22, 23 > 인사동 부활절 계란 전도



< 사진 24 > 중앙교회 10층에 위치한 무인 카페 (엔 카페)



< 사진 25 > 종로구청 시무식 (중앙교회 본당 사용)



< 사진 26 > 종로구청 시무식 (최태성 선생님 역사특강)



이와 함께 교회 공간을 지역을 위해 개방하고 공유하는 일에도 문을 열어놓았다. 앞서 설명한대로 중앙교회는 빌딩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평일에는 일반 직장인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공간이다. 빌딩 안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교회건물 10층에 위치한 무인 카페를 개방하여 운영 중에 있다. 외부로 나가지 않더라도 직장 건물 안에서 잠시 쉼을 가질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종로구에 위치한 중앙교회는 종로구 경목회모임을 위해 예배실을 개방하여 모임장소를 제공하고 있으며, 종로구청의 시무식 장소로 본당을 개방하기도 하였다. 지역 사회 안에서 다양한 단체의 필요에 반응하고 교회로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중앙교회는 지역과의 코이노니아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또한 중앙교회는 구제 사역을 통해서도 지역과 이웃을 섬기고 있다. 교회가 이웃과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구제 사역이다. 그리고 교회학교 시기부터 이러한 섬김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낯선 이들에게 다가가는 코이노니아의 훈련을 경험할 수 있다.

< 사진 27 > 지역 연탄봉사 참여(교회학교와 청장년)



< 사진 28 > 돈의동 쪽방촌 생필품 박스 전달



중앙교회 주변은 높은 빌딩들이 가득하다. 하지만 이러한 빌딩 숲 사이에 생가지 못한 쪽방촌이 있다. 돈의동 쪽방촌이다. 중앙교회는 기회가 되는대로 생필품 박스 전달이나 김장김치 나눔 등을 통해 지역 구제 활동에 임하고 있다.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지역사회의 필요에 반응하는 것, 이를 통해 성경적 코이노니아를 교회가 속한 지역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다. 도심은 점점 더 현대화되어가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아직도 연탄을 사용해 난방을 하거나 하루 식사 해결을 고민하는 이웃들이 존재한다. 교회가 이루어야 할 성경적 코이노니아는 성도만의 교제와 침묵도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신대로 실천하고자 노력했던 것과 같이 지금 우리의 교회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교회가 이웃들을 향해 나아가며 나눔과 섬김이 이루어질 때에 그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는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제 V 장

결 론

코이노니아를 이야기할 때에 어찌면 당연하게 거론해야 할 부분은 소그룹 코이노니아라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소그룹 코이노니아의 부분은 따로 다루지 않았다. 성경적 코이노니아는 소그룹이든 대형 그룹이든 그룹에 인원 수에 따라 국한되지 않는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한 번에 3천명이 회심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단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해 사도들의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기도 하였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는 코이노니아는 언제 어디서든, 어떤 인원의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의 교회와 교회가 속한 지역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코이노니아를 경험하고 있는가, 어떠한 코이노니아가를 꿈꾸고 있으며, 꿈꾸는 코이노니아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이다. 프로그램이 아닌, 사역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그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먼저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분명하게 경험되어지는 이들, 그리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른 이들과, 혹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이들과도 깊은 교제와 공유와 나눔이 일어나는 코이노니아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실현되기를 소망해본다. 교제가 일어나는 곳은 교제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사역의 자리이고 예배의 자리이며 기도의 자리이다. 교제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다. 현대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들, 코이노니아의 문제 말고도 여러 어려움들이 교회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만남을 통해서였고,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도 관계를 맺는 것이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만남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리고 성령님이 지금 도우시는 것처럼 코이노니아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현대 교회가 출발하는 것을 제안해본다.

부록 1 전교인 수련회 참가자 명단

2023 중앙&배화 꿈빛캠프 등록명단

	센터	이름	회비(현금)	회비(통장)	티셔츠 사이즈	차량
1	교역자실	이오노		60,000	XL	교회
2	교역자실	김오진		60,000	XL	교회
3	교역자실	이오문			4XL	선발
4	교회학교	서오영		60,000	M	자가
5	교역자실	오오희			M	교회
6	교역자실	김오지			3XL	교회
7	교역자실	서오빈			2XL	교회
8	교역자실	김오연			L	교회
9	교역자실	김오동			M	교회
10	교역자실	이오철			3XL	교회
11	교역자실	김오원			2XL	교회
1		강오자		60,000	L	교회
2		곽오순		60,000	XL	교회
3		국오숙		60,000	L	교회
4		권오자		60,000	L	개인
5		김오여	소오수	60,000	L	교회
6		김오효		60,000	L	교회
7		김오재		60,000	2XL	교회
8		김오희		60,000	L	교회
9		김오홍		60,000	2XL	교회
10		김오진		60,000	XL	개인
11		김오태		60,000	2XL	개인
12		김오선		60,000	2XL	교회
13		김오숙		60,000	M	개인
14		김오애		60,000	3XL	개인
15		김오화		60,000	L	교회
16		김오현		60,000	XL	개인
17		김오임		120,000	L	교회
18		김오철		30,000	M	개인
19		김오배		60,000	L	교회
20		김오숙2		60,000	L	교회
21	유오숙	류오숙		120,000	M	개인
22		문오호		60,000	3XL	개인
23		문오선		60,000	L	개인
24		박오호		60,000	L	교회
25		박오증		60,000	2XL	개인
26		박오숙		60,000	2XL	교회
27		박오원		60,000	3XL	교회

28		서O배		120,000	3XL	교회
29		석O회		60,000	3XL	교회
30		선O자		60,000	L	교회
31		소O수		60,000	2XL	개인
32		송O선		60,000	XL	개인
33		연O옥		30,000	XL	교회
34		오O환		60,000	L	교회
35		오O민		30,000	2XL	개인
36		윤O자		60,000	3XL	교회
37		이O훈		60,000	L	교회
38		이O옥		60,000	XL	개인
39		이O웅		60,000	L	교회
40		이O운		60,000	XL	개인
41		이O선		60,000	M	개인
42		이O희		60,000	L	교회
43		이O자		60,000	M	교회
44		이O자		60,000	3XL	교회
45		이O일		60,000	XL	교회
46		이O아		60,000	L	개인
47		이O은		60,000	M	교회
48		장O분		60,000	XL	교회
49		전O경		60,000	L	개인
50		전O숙		60,000	L	교회
51		전O영		60,000	XL	교회
52		정O신		60,000	L	개인
53		정O숙		60,000	XL	교회
54		정O순		60,000	XL	교회
55		정O순		60,000	XL	교회
56		정O연		60,000	L	개인
57		정O호		60,000	3XL	개인
58		조O석		60,000	XL	교회
59		조O애		60,000	3XL	개인
60		조O순		60,000	M	교회
61		조O용		60,000	3XL	교회
62		조O주		60,000	L	교회
63		채O희		60,000	XL	교회
64		최O옥		60,000	L	교회
65		최O임		60,000	L	개인
66		홍O표		120,000	L	개인
67		홍O수		60,000	3XL	개인
68		홍O아		60,000	S	교회
69	유치부교사	허O원		30,000	2XL	개인

70	유치부교사/청년	성O은			S	개인
71	아동부교사	지O미		30,000	M	교회
72	아동부교사/청년	이O혜			L	교회
73	아동부교사/청년	김O영			L	교회
74	아동부교사/청년	이O희			3XL	개인
75	중고등부교사	문O민			2XL	교회
76	중고등부교사	이O엽		30,000	L	개인
77	중고등부교사	강O정		30,000	2XL	교회
78	청년/교사봉사	성O진			M	개인
합계				4,530,000		

2023 중앙&배화 꿈빛캠프 교회학교 등록명단

	부서	이름	회비(현금)	회비(통장)	티셔츠 사이즈	차량
1	유치부	이O리		30,000	15호	개인
2	유치부	이O온		30,000	14호	개인
3	유치부	박O희		30,000	15호	교회
4	아동부	강O별		30,000	XL	교회
5	아동부	김O나		30,000	15호	개인
6	아동부	김O담		30,000	16호	개인
7	아동부	김O영		30,000	17호	교회
8	아동부	김O윤		30,000	17호	교회
9	아동부	박O우		30,000	17호	교회
10	아동부	정O인		30,000	S	개인
11	아동부	정O인		30,000	15호	개인
12	아동부	조 O		30,000	L	교회
13	아동부	홍O은		30,000	M	개인
14	중고등부	강O양	이O철	40,000	2XL	교회
15	중고등부	김O수	이O철	40,000	M	교회
16		박 O	이O철	40,000	XL	교회
17		방O한		40,000	3XL	교회
18		이O우		40,000	3XL	교회
19		이O현		40,000	3XL	교회
20		이O임		40,000	M	개인
21		정O훈	이O철	40,000	2XL	교회
22		홍O하		40,000	M	개인
합계				750,000		

2023 배화교회 등록명단

	부서	이름	회비(현금)	회비(통장)	티셔츠 사이즈	차량
1		한O철	210,000		3XL	자차
2		조O영			L	자차
3	유치부	한O웅			14호	자차
4	초등부	한O현			15호	자차
5	초등부	한O서			16호	자차
6		서O욱	180,000		3XL	자차
7		이O름			2XL	자차
8	초등부	서O든			17호	자차
9		임O훈	180,000		3XL	자차
10		주O			3XL	자차
11	유치부	임O하			15호	자차
12	유치부	임O안			14호	자차
13		최O용	230,000		3XL	자차
14		추O영			3XL	교회
15		최O성			2XL	교회
16	중등부	최O광			XL	교회
17	초등부	최O양			XL	교회
18		김O석	220,000		2XL	자차
19		홍O진			L	자차
20		김O현			XL	자차
21	고등부	김O윤			2XL	자차
22		박O수	180,000		XL	자차
23		변O			L	자차
24	초등부	박O례			15호	자차
25		강O건	120,000		3XL	자차
26		최O성			M	자차
27		강O음			-	자차
28		최O애	60,000		M	자차
29		박O현	60,000		XL	자차
30	스텝	이O형	30,000		3XL	자차
31	스텝	노O영	30,000		XL	자차
32		송O혜	60,000		L	자차
33	고등부	박O수	40,000		XL	자차
34	고등부	박O석	40,000		L	자차
35		이O혁	150,000		2XL	자차
36		박O주			L	자차
37	유치부	이O을			17호	자차
38		정O화	60,000		XL	자차
39		송O경	90,000		M	자차
40	초등부	박O록			15호	자차
	합계		1,940,000			


부록 2 전교인 수련회 숙소배정

[5동] 숙소배정표						[6동] 숙소배정표					
301(6인실) [중고등부기] 이영철 강태랑 김택운 박규석 최명성	302(4인실) 최정용 추세영 최찬양	303(4인실) [중고등부기] 강희정 이하임 홍주하	304(4인실) 홍성수 허지원 홍새은	305(4인실) 김진현 이정아 김예담 김예나	306(6인실) [중고등부기] 안승욱 방요한 이종우 이중현 최영광	301(6인실) [중고등부기] 이창희 문성민 박지현 이보형 노준영 김택현	302(4인실) 김다영 이은혜 성예은 성예진	303(4인실) 김령재 김영태 김현철 김기도	304(4인실) 서민욱 이아름 서이든	305(4인실) 조영남 장유민 조재희 조이안	306(6인실) 송민혜 장경화 최신애 송윤경 박초록 고은지
201(6인실) [중고등부기] 이준업 김남수 박지수 정영훈	202(4인실) 이희문 서아영 이하리 이하은	203(4인실) 임경훈 주 영 임주하 임주안	204(4인실) 이규혁 박진주 이선율	205(4인실) 김세홍 이연일 김아영 김아윤	206(6인실) 김정숙 김종화 이경욱 이주은 지현미 홍정아	201(6인실) 김미희 박찬원 조현주 박준희 박준우	202(4인실) 장진호 장지연 장서인 정수인	203(4인실) 김귀여 선영자 김준임 소남수	204(4인실) 박진수 변 진 박이레	205(4인실) 한호철 조진영 한수웅 한에서 한지현	206(6인실) 김수진 김홍배 박덕중 송경선 오정원 조금석
101(6인실) [분부/ 유치부활동실] 김기동 김시원 서영빈 오주민 강한별 조환	102(4인실) 김화숙 윤영자 이순자 김정애	103(4인실) 강숙자 정지순 정양숙 조병애	104(4인실) 이선희 전혜영 조보순	105(4인실) 박성숙 정영신 최정임 이수자	106(6인실) [분부] 김지연 김지연 오경희	101(6인실) 김기효 박노호 이기용 이동은 조재용 채상희	102(4인실) 홍경표 류영숙	103(4인실) 문인호 전미경 이만선 문지선	104(4인실) 곽덕순 김의선 최윤옥	105(4인실) 강영건 최은성 강말음	106(6인실) 국영숙 곽영자 정영순 장귀분 전병숙
			계			102(4인실) 이형노 김수진		103(4인실) 김영석 홍병진		[4동]	

부록 3 전교인 수련회 조편성표

[1~4조] 조편성표				[5~8조] 조편성표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
중앙 권영자 김진현 이정아 박찬원 조현주 조금석 전병숙 이은혜	중앙 김귀여 김수진 김정숙 류영숙 홍경표 선영자 소남수 안승욱 강숙자 정지순 정양숙 서영빈	중앙 국영숙 김기효 김의선 조재용 김화숙 홍성수 허지원 오경희	중앙 박노호 정영순 이기용 조보순 전혜영 정지연 정진호 김령재 이주은 오주민 김지연 김다영	중앙 이경욱 이동은 장귀분 채상희 김희정 박성숙 송경선 홍정미 지현미 김세홍 이연일 최윤옥 김시원 성예은 성예진	중앙 김종화 오정환 김현철 박성숙 송경선 홍정미 지현미 김세홍 이연일 최윤옥 김시원 성예은 성예진	중앙 문인호 전미경 문지선 이만선 이주은 이준업 박덕중 정영신 이희문 서아영	중앙 곽덕순 윤영자 이순자 김홍배 이수자 이형노 김수진 문성민
배화 한호철 조진영 이보형 박지현	배화 박진수 변 진 송윤경	배화 김영석 홍병진 서민욱 이아름	배화 최정용 추세영 노준영 정경화	배화 송민혜 고은지 최신애	배화 이중현 이중우 김말음 조재희 조이안	배화 강영건 최은성 조영남 정유민	배화 이중현 이중우 김말음 조재희 조이안
교회학교 김예담 김예나 박준우 박준희 한수웅 한지현 한에서	교회학교 김남수 조 환 홍주하 홍새은 김택현 김택운 서이든	교회학교 김남수 조 환 홍주하 홍새은 김택현 김택운 서이든	교회학교 정서인 정수인 최명성 최영광 최찬양	교회학교 김하영 김하윤 강한별 강태랑	교회학교 김하영 김하윤 강한별 강태랑	교회학교 김하영 김하윤 강한별 강태랑	교회학교 김하영 김하윤 강한별 강태랑

부록 4 전교인 수련회 신청서



2023 여름 & 배회 콧빛캠프

7.27(목) - 29(토)
천안 상록 리조트
<http://www.sangnokresort.co.kr>

경남지역 중앙교회

2023 콧빛캠프 신청서

- 이 름 : _____
- 연락처 : _____
- 주민등록번호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합니다

- 회비 납부여부
성인 : 6만원
중고등부 : 4만원
아동부, 유치부(5~7세) : 3만원
5세 미만 : 무료

완납(현금) 계좌

기입 : 024-000583-04-193
예금주 : 기독교대한감리회중앙교회

- 티셔츠 사이즈
S(85) M(90) L(95)
XL(100) 2XL(105) 3XL(110)
- 차편 선택
개인차량 교회차량

※ 4인실의 경우 4인 가족 우선 배정
※ 6인실의 경우 성별과 연령에 따라 배정

부록 5 전교인 수련회 이름표



부록 6 전교인 수련회 장소 지도



부록 7 교회학교 연합 필리핀 선교 사역 계획표

어린이 사역 진행계획

	종목	담당자	진행방법	준비물	장소
먹기 게임	과자따먹기	김수진사모, 맹민주, 성예진, 김은소 정영훈	2~4개 팀이 릴레이로 진행 / 한 팀 당 4~5명 정도 / 과자를 따먹고 손 터치 / 가장 먼저 들어온 팀은 달란트카드 지급	꼬인 줄, 짐계, 과자(현지구임) 신호용 호각	야외
	사탕찾기	김혜림집사, 이종우 이형노목사	2~4개 팀이 릴레이로 진행 / 한 팀당 4~5명 정도 / 쟁반 위 밀가루 속 사탕을 물고 돌아와 손 터치(코끼리코 돌기를 조합할 수 있음)/ 가장 먼저 들어온 팀은 달란트 카드 지급	밀가루(현지구임), 사탕, 쟁반(현지조달)	야외
활동 게임	카드뒤집기	지현미권사, 김영리 고희현, 이종현	2팀으로 나누어 진행 / 한 팀당 4~5명 / 1분 동안 자기 팀 색으로 뒤집기 / 승리 팀에 달란트 카드 지급	카드(24장) 신호용 호각	야외 (또는 실내)
	꼬리잡기	오주민집사, 김민소, 연가빈	시작은 두 명씩 가위바위보 / 이긴 사람 뒤에 진 사람이 허리를 잡음 / 인원수에 따라 한 번 더 가위바위보를 할 수 있음 / 한 팀 당 4명 정도 / 맨 뒷 사람 허리에 풍선을 묶고 터뜨리기 / 이긴 팀에 달란트 카드 지급	끈, 풍선, 펌프	야외
	신발던지기	이상원권사, 허은재, 방성현	신발을 잘 던져 바구니에 넣기 / 넣으면 달란트 카드 지급	던지기용 신발 3짝, 바구니	야외
창작 활동	플라로이드 사진촬영	허성윤권사, 성예은	※한 사람이 여러 번 찍지 않도록 주의	플라로이드사진기 필름	실내
	액자꾸미기	한혜수, 이주안	액자를 나눠주고 색연필, 사인펜, 스티커 등으로 자유롭게 꾸민다. (액자 안에 사진 넣어주기)	샘플, 액자, 사인펜 스티커, 색연필	실내
	비누만들기	한혜수, 성예은, 성예진 맹민주, 김영리, 김은소	(Home for Girl에서 진행)	샘플, 비누클레이 몰티슈	실내
전체진행	김성민전도사				
사진,영상	이희문목사				

부록 8 교회학교 연합 필리핀 선교 공연 계획

공연규시트

순서	팀	팀원	프로그램	음향	무대세팅
1	어린이 찬양/율동	지현미권사, 한혜수, 성예은, 맹민주, 성예진, 방성현, 정영훈, 이종현 (싱어팀 : 김성민전도사, 김영리)	· 기도의 히어로 · Jump to heaven · 오늘도 들어주셨죠 · Let's pray · 천국은 마치 · 지금 이 시간	MR+싱어	마이크
2	워십댄스	성예은, 성예진, 맹민주, 김은소	· Romans 16:19 says	MR	
3	샌트랄 소년 합창단	방성현, 정영훈, 이종현, 이종우 반주 : 허성윤 권사	· Light of the world · 도레미송 (핸드벨)	피아노 반주	피아노 탁자
4	악기3중주	바이올린 : 성예은, 성예진, 연가빈, 이주안 클라리넷 : 허은재 피아노 : 허성윤 권사	· No Other Name /Robert Gay · The Comforter Has Come / William J. Kirkpatrick	지휘 및 반주 : 허성윤	피아노 / Helper (악보도우미)
5	스킷 드라마	김혜림집사, 맹민주, 허은재, 고희현, 김은소, 이주안, 연가빈, 김민소 (연출 : 김수진 사모)	· Everything	MR	
6	특송	선교팀 전체	· 마할 나 마할 까따 팡이노온 (Mahal na mahal Kita, Panginoon) · 미나 마할 까따 (Minamahal kita)	피아노 기타	

참고문헌

국내서적

권순웅 외 『코로나 이후 교회 교육을 디자인하다』 서울: 들음과 봄, 2020.

박영호. 『우리가 몰랐던 1세기 교회』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21.

이현철 외 『코로나시대 청소년 신앙리포트』 서울: SFC, 2021.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서울: 통독원, 2020.

조병호. 『성경과 고대전쟁』 서울: 통독원, 2021.

조병호. 『신구약 중간사』 서울: 통독원, 2021.

지용근 외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서울: 규장, 2022.

지용근 외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서울: 규장, 2023.

채영삼. 『코이노니아 성경 해석 가이드북』 서울: 이레서원, 2017.

채영삼. 『코이노니아와 코스모스』 서울: 이레서원, 2021.

번역서적

- Leonard Sweet. 『관계의 영성』 윤종석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7.
- Leonard Sweet.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이지혜 역. 서울: 좋은씨앗, 2002.
- Leonard Sweet. 『모던 시대의 교회는 가라』 김영래 역. 서울: 좋은씨앗, 2004.
- Leonard Sweet. 『미래 크리스천』 김영래 역. 서울: 좋은 씨앗, 2005.
- Leonard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김영래 역. 서울: 좋은씨앗, 2002.
- Maria Harris. 『교육목회 커리큘럼』 고용수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 Thom S. Rainer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정성목 역. 서울: 두란노, 2022.

참고논문

- 강사문, 「코이노니아의 구약 성서적 이해」 (장신논단 제10집, 1994)
- 김범태, 「교회시설 활용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기독교 개신교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2018)
- 김성중, 「전환기 시대 교회의 코이노니아」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2022)
- 박근원, 「코이노니아 교회 형성의 실천적 과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 10집, 1993)

박재필, 「교회(教會)와 교회(交會) 그리고 울림과 어울림의 코이노니아」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2022)

박종천, 「코이노니아 교회론」 (대한기독교서회, 1993)

안영권, 「21세기 선교 전략으로서의 코이노니아 선교」 (한신대학교 신학연구소, 1999)

오우성, 「신약 공동체의 코이노니아」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10집, 1993)

유선희, 「가정과 교회의 회복과 도약: 거친 땅과 가파른 암벽을 넘어서 새로운 도약을 향하여」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2022)

이경순,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독교 사상을 통한 사회복지실천에 관한 연구」

이종윤, 「신약에 나타난 코이노니아」 (한국신약학회, 1995)

이형원, 「하나님의 백성의 코이노니아를 위한 구약성서적 제안」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 10집, 1993)

조경철, 「코이노니아의 성서적 이해 : 사도 바울의 이해를 중심으로」 (기독교사상 제 416호, 1993)

조성돈, 「고령화 사회, 교회의 역할을 고민하다」 (대한기독교서회, 2023)

차정식, 「바울의 ‘코이노니아’ 와 사회복지 사상」 (한신대학교 신학사상 연구소, 2007)

채영삼, 「코로나, 코스모스, 코이노니아:공동서신을 통해 본 복음, 교회의 본질과 기독교교육적 함의」 (생명과 말씀, 2021)

한국일, 「선교적 교회로서 지역교회의 역할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2018)

허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한국교회의 목회방안 연구」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2018)

V I T A

PERSONAL DATA

Full Name: Hee Moon Lee

Place and Date of Birth: Seoul, South Korea, May 21, 1976

Parent`s Names: Hyeong Mo Lee and Na Ok Cho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econdary: Banpo High School 71, Gomurae-ro, Seocho-gu, Seoul, Korea	Diploma	Feb 9, 1995
Collegiate: Yonsei University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Korea	B.A	Feb 24, 2003
Graduate: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56, Dongnimmun-ro, Seodaemun-gu, Seoul, Korea.	M. Div	Feb 14, 2012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Hee Moon Lee

Name typed

February 29, 2024

date